

## 高麗初期 靑磁生産體制의 變動과 그 背景

李喜寬\* · 崔 健\*\*

차 례

- I. 머리말 - 高麗初期 靑磁生産體制의 變動問題를 解決하는 길 -
- II. 高麗初期 靑磁窯址의 分析
- III. 中西部地方 靑磁窯의 消滅과 그 背景
- IV. 康津地方 中心의 靑磁生産體制의 成立과 그 意味
- V. 맺음말

### I. 머리말 - 高麗初期 靑磁生産體制의 變動問題를 解決하는 길 -

다 아는 바와 같이, 고려시대—경우에 따라서는 통일신라시대 말기를 포함하여—의 청자 생산과 관련하여 全羅南道 康津地方을 돌려놓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그 정도로 강진지방의 靑磁窯는 청자 생산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금도 康津郡 大口面과 七良面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200여 개소의 靑磁窯址들과 그 주변에 퇴적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다양하고 질이 높은 청자 파편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圖 1).<sup>1)</sup>

하지만 강진지방의 청자요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와 같이 청자 생산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청자 생산 초기에는 규모나 청자의 질에 있어서 강진지방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많은 청자요들이 한반도의 중서부지방에서도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黃海南道 峰泉郡 鳳岩里와 圓山里, 京畿道 陽州郡 釜谷里와 高陽市 元興洞, 始興市 芳山洞과 龍仁市 西里(靑磁·白磁 窯址), 忠淸南道 瑞山郡 梧沙里, 그리고 全羅北道 鎭安郡 道通里와 高敞郡 龍溪里·盤岩里 등의 청자요들이 그 대표적인

\* 湖林博物館 學藝室長

\*\* 海剛陶磁美術館 學藝室長

1) 강진지방의 청자요지에 대한 조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가장 최근의 조사내용을 담고 있는 崔 健 外, 『康津의 靑磁窯址』(海剛陶磁美術館·全羅南道·康津郡, 1992)가 가장 자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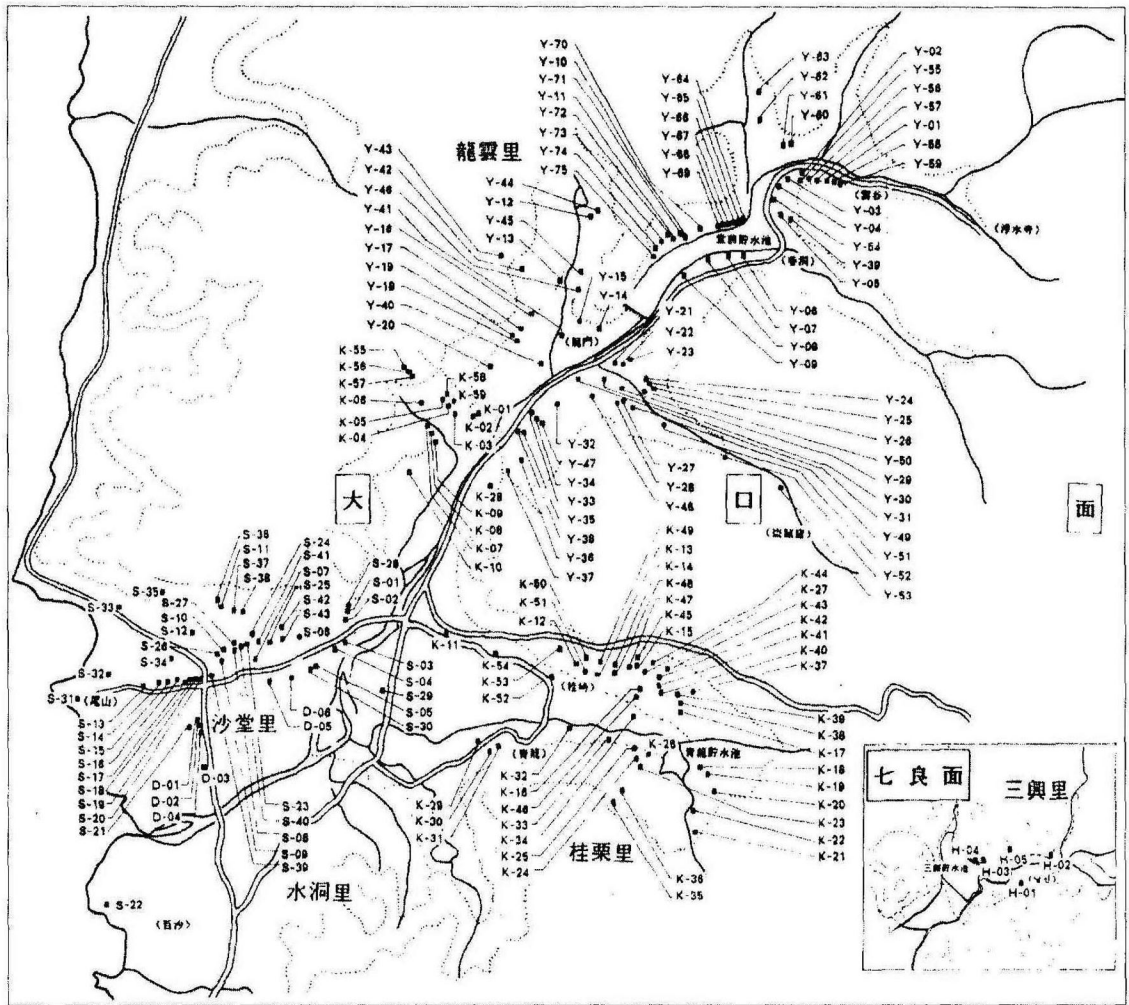


圖 1. 전라남도 강진군 청자요지분포도. 강진군의 靑磁窯址는 1963년 국가사적 제6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1년 해강도자미술관의 정밀지표조사 결과 188개소의 가마터가 확인되었다(崔健外, 『康津의靑磁窯址』, 海剛陶磁美術館·全羅南道·康津郡, 1992).

것들이었다.<sup>2)</sup> 그렇다면 결국 강진지방의 청자요는 그러한 중서부지방의 청자요들을 누르고 청자 생산에 있어서 중심적인窯로 부각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청자 생산체제에 커다란 변동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그러한 변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은 언제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

이와 같은 청자생산체제의 변동과 관련된 문제는 고려청자 연구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이 때 성립된 강진 청자요 중심의 청자생산체제가 거의 고려

2) 崔健, 「韓國初期靑磁의分類와變遷—窯址出土品を中心に—」, 『東洋陶磁』 22(東洋陶磁學會, 1994), pp. 42~43 및 「靑磁窯址의系譜와展開」, 『미술사연구』 12(미술사연구회, 1998), pp. 10~11 참조.

시대 전 기간에 걸쳐—물론 도중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기존의 연구방법, 즉 강진지방과 중서부지방의 청자 자료나 窯址의 비교·분석만을 통해서만 제대로 해결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에 대한 연구성과가 거의 全無한 것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시각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청자의 생산이 국가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국가가 그것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떠올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예컨대 국가에서는 특정 지방에 磁器所를 설치하여 청자를 製作·貢納케 하였다. 아울러 관리를 파견하여 공납할 청자의 質과 糧은 물론 器種과 器形, 그리고 文樣따위까지 정해주기도 하였다.<sup>3)</sup> 이와 같이 청자 생산에 있어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강진지방의 청자요가 중서부지방의 청자요들을 누르고 청자 생산에 있어서 중심적인 窯로 부각되게 된 현상은 기본적으로 두 지역의 청자요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들과 국가와의 관계에까지 시야를 확대시켜 파악할 때 비로소 이해가 가능하리라는 것이 필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진지방과 중서부지방의 청자요에 대한 정직한 비교·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토대로 당시 청자 생산을 둘러싼 국가와 두 지역의 청자요—엄밀하게 말하면 청자요의 운영자들—사이의 이해관계 등을 정치적·사회경제적 시각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필자들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규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필자들이 이 문제를 공동작업으로 해결하고자 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本稿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려 초기의 강진지방과 중서부지방 청자요의 구조와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정밀하게 비교·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서부지방 청자요가 소멸하고 강진지방 청자요 중심의 청자생산체제가 성립되는 과정과 그 시기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서부지방 청자요가 소멸되게 되는 배경을 각별히 정치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추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진지방 중심의 청자생산체제가 성립될 수 있었던 원인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3) 이 점은 이미 崔健이 언급한 바가 있다(崔健,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p. 20).

4) 李基白, 「高麗의 文化와 磁器」, 『世界陶磁全集』 18 高麗(小學館, 1978); 高麗貴族社會의 形成(一潮閣, 1990), pp. 157~158; 崔健, 「高麗時代後期の 象嵌靑磁와 陶磁觀에 關하여」,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海剛陶磁美術館, 1991), p. 124; 李喜寬, 「高麗後期 己巳銘象嵌靑磁의 製作年代問題에 對한 새로운 접근」, 『美術史學研究』 217·218(韓國美術史學會, 1998), pp. 13~14 참조.

필자들은 고려청자의 전개과정과 성격을 좀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일련의 공동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말하자면 本稿는 그 시작이 되는 셈이다. 여러 先學諸賢들의 叱正을 바란다.

## II. 高麗初期 靑磁窯址의 分析

### 1) 窯址의 分布와 系列

초기청자는 중국 唐代後期(8세기 후기~9세기 전기)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특별한 형식의 日暈底(玉璧底)碗(圖 2-1)과 마치 滿開하기 직전의 꽃송이 모양을 한 花瓣形樑匙 등이 주요 器種을 이루며, 丸彫蓮瓣文과 같은 단순한 刻文 외에 거의 문양을 새기지 않은 素文靑磁라는 점 등을 그 중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圖 2-2). 그리고 그릇의 接地面이 바닥에 녹아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熔融溫度가 높은 白色耐火土를 빚어서 받친 흔적이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초기청자의 대표적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sup>5)</sup>

이러한 초기청자를 만들었던 窯址는 우리나라 중서부와 남서해안 지방의 16개 지역에 산재하고 있다. 이들은 청자를 만드는 핵심적 기술인 築窯法과 窯道具의 사용법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方形耐火磚으로 窯를 쌓고 <筒形匣鉢 세트>와 <鉢形匣鉢 세트>에 청자 그릇을 넣어 窯 안에 적재하는 기술을 구사한 이른바 '磚築窯' 계열이고, 또 다른 하나는 耐火粘土를 그대로 써서 窯를 쌓고 <筒形匣鉢 세트>와 <陶枕>을 사용하여 적재하는 기술을 쓴 '土築窯' 계열이다.<sup>6)</sup> 전자는 중서부지방에 넓게 산포되어 있고, 후자는 남서해

5) 초기청자는 통상 이른 시기의 청자라는 의미이지만, 본고에서는 각별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청자가 제작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련기에 접어들기 이전까지의 청자를 가리킨다. 이 점에서 초기청자는 청자의 전개 과정에서 불 때, 발생기와 발전기에 해당한다. 초기청자—동일한 시기의 백자를 포함하여—는 일정한 양식적 특징을 갖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日暈底(中國에서는 玉璧底라고 부름) 樣式의 碗과 花瓣形의 樑匙가 共伴하며, 일부 丸彫蓮瓣文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문양이 없는 素文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식적 특징을 갖는 청자가 출토되는 窯址를 초기청자 요지라고 한다. 초기청자의 양식적 특징에 대해서는 野守健이 일흔지 양식의 碗에 관하여 언급한 이후(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清閑舍, 1944), p. 142 및 pp. 170~173), 鄭良謨와 崔健에 의해 구체적인 분류와 특징에 대한 규명이 시작되었다(鄭良謨, 『高麗靑磁』, 『高麗靑磁名品特別展』(國立中央博物館, 1989); 정양표, 『한국의 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pp. 181~187; 崔健, 『韓國初期靑磁의分類と變遷—窯址出土品を中心に—』, pp. 41~64 참조). 한편, 청자 발생 문제에 관한 최근까지의 연구사적 검토는 崔健, 『高麗靑磁의發生問題—고려청자 언젠 어떻게 만들어졌나—』, 『美術史論壇』創刊號(한국미술연구소, 1995), pp. 269~294를 참고하라.

6) 磚築窯는 일정한 규격의 耐火磚을 사용하여 쌓았기 때문에 벽돌로 쌓은 가마라는 뜻에서 '磚築窯'라는 표현이 적당하다. 단 土築窯의 경우에는 耐火土만을 쓰지 않고 일부 石材와 망승이—가마 쌓기 위하여 마치 큰 참외와 같은 형태로 빚은 내화토 덩어리—를 함께 썼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도축요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전축요의 주재료인 '벽돌'과 비교되는 '흙'으로 쌓았다는 점에서 '土築窯'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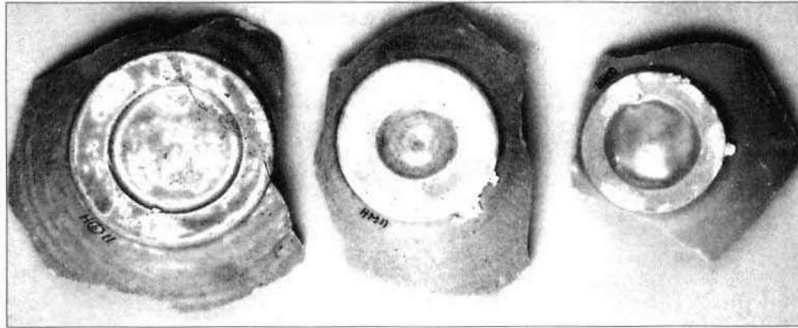


圖 2-1. 강진 청자요지 출토 日暈底碗의 底部. 左는 용운리 63호요지 출토품, 中과 右는 용운리 9호요지 출토품.



圖 2-2. 강진 용운리 63호요지 출토품. 63호요지는 강진군 청자 가운데 가장 초창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上·右는 花瓣形접시, 中은 玉緣形 접시.

안지방에 밀집·분포되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초기청자 요지를 전축요 계열과 토축요 계열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圖 3 참조).

#### 〈博築窯 系列〉

- ① 平安南道 江西郡 芴次面 二里 청자요지
- ② 黃海南道 峰泉郡 鳳岩里 청자요지(대규모 2개소)
- ③ 黃海南道 峰泉郡 圓山里 청자요지(대규모 3개소)
- ④ 京畿道 陽州郡 長興面 釜谷里 청자요지(소규모 3개소)

고 표현하였다. 博築窯와 土築窯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崔健, 「韓國初期靑磁의 分類と變遷—窯址出土品を中心に—」, pp. 41~64와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pp. 10~11을 참조하라.

- ⑤ 京畿道 高陽市 元興洞 청자요지(대규모 1개소)
- ⑥ 京畿道 始興市 芳山洞 청자·백자요지(대규모 2, 소규모 1개소)
- ⑦ 京畿道 麗州郡 北內面 中岩里 백자요지(소규모 1개소)
- ⑧ 京畿道 龍仁郡 二東面 西里 백자(청자)요지(대규모 2개소)
- ⑨ 忠淸南道 瑞山郡 聖淵面 梧沙里 청자요지(대규모 1, 소규모 1개소)
- ⑩ 全羅北道 鎭安郡 聖壽面 道通里 청자요지(소규모 6개소)
- ⑪ 全羅北道 高廠郡 雅山面 龍溪里·盤岩里 청자요지(대규모 2개소)
- ⑫ 慶尙北道 漆谷郡 枝川面 昌坪里 및 大邱市 東區 眞仁洞 청자·黑磁요지(소규모 3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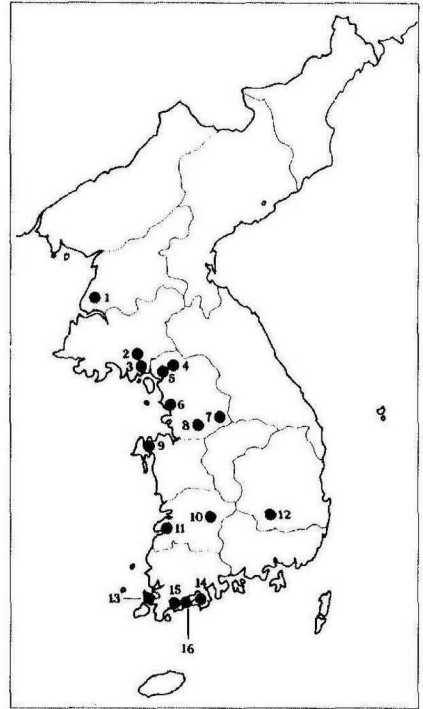


圖 3. 한국 초기청자요지 분포도. 埴築窯 계통은 중부 서해안지방에 넓게 산포하며, 土築窯 계통은 남부 서남해안지방에 밀집 분포하고 있다.

#### 〈土築窯 系列〉

- ⑬ 全羅南道 海南郡 花園面 新德里 청자·黑磁요지(소규모 약30개소)
- ⑭ 全羅南道 高興郡 豆原面 雲岱里 청자·흑자요지(소규모 2개소)
- ⑮ 全羅南道 康津郡 大口面 龍雲里·桂栗里·沙堂里 청자요지(소규모 46개소)  
康津郡 七良面 三興里 청자요지(소규모 3개소)
- ⑯ 全羅南道 長興郡 蓉山面 豐吉里 청자요지(소규모 1개소)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초기청자 요지 가운데 전축요 계열은 주로 우리나라 중서부의 대부분 지역에 폭 넓게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지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축요의 특징을 뚜렷하게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서리와 용계리 요지와 같이 처음에는 규모가 큰 전축요로 시작하였지만, 그 후 규모가 작아지면서 토축요로 전환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대부분 전축요의 퇴적 규모가 컸던 반면 부곡리·중암리·도동리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규모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축요의 특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봉암리·원산리·원흥동·방산동, 오사리 요지를 일차적인 검토의 대상으로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각별히 이미 완전한 학술적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원산리와 방산동 요

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sup>7)</sup>

토축요의 경우에도, 전체 토축요 계열 중에서 수적으로 비중이 작은 운대리와 풍길리의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신덕리 요지의 경우도 강진지방의 초기청자 요지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의 대표적 토축요인 강진지방의 요지군만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였다.<sup>8)</sup>

말하자면, 전축요와 토축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며 발굴조사를 통하여 요지의 성격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는 대표적인 요지들만을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셈인데, 이러한 방법이 초기청자窯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는데 그다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2) 窯址의 環境과 窯構 및 堆積 規模

일반적으로 窯의 위치는 도자기에 필요한 원료 및 연료의 조달, 생산물 운송, 인력 동원, 작업 공간 확보 등을 포함한 여러 필수적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선정하는데, 이 조건들이 잘 갖추어진 곳을 '이상적 요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초기청자 요지들은 胎土로 쓸 수 있는 堆積粘土가 풍부하며 水運을 이용한 생산물 운송이 유리한 해안가나 강하구에 인접하고 있어서 대체로 이상적인 요지 환경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축요와 토축요 계열 요지의 위치와 주변 자연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은 각 계열마다 요지를 선정하는 세부적 기준이 달랐음을 의미하는 대목이 아닐까 한다.

먼저 중서부지방 전축요 계열을 대표하는 봉암리·원산리·원흥동·방산동·오사리 요지들은

7) 원산리 요지는 1989~90년 발굴하여 현장에 복원·전시되어 있다. 김영진,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가가마터발굴 간략보고」, 『조선고고연구』 79(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91)와 『조선도자사연구』(三國~高麗)(춘추각, 1995), pp. 129~138; 南秀雄, 「圓山里窯跡と開城周辺の靑磁資料」, 『東洋陶磁』 22(東洋陶磁學會, 1994). 사진 자료가 주로 게재된 『조선유적유물도감』 12 고려편 3(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 참조. 방산동요지는 海剛陶磁美術館이 1997~1998년에 두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하여 대규모의 퇴적과 완전한 상태의 窯構를 확인하였다. 崔健 外, 『芳山大窯』(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始興市, 2001) 및 李鍾玟, 「始興 放山洞 初期靑磁 窯址 出土品을 통해 본 中部地域 博築窯의 運營時期」, 『美術史學研究』 228·229(韓國美術史學會, 2001) 참조.

8) 토축요 요지의 지표조사 보고서로는 崔淳雨, 『韓國靑磁陶窯址』(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姜大奎 外, 『全南地方 陶窯址 調査報告』(Ⅱ)(國立光州博物館, 1988), 姜大奎, 『全南地方 陶窯址 調査報告』(Ⅳ)(國立光州博物館, 1995), 崔健 外, 『康津의 靑磁窯址』(海康陶磁美術館·全羅南道·康津郡, 1992) 참조. 이 가운데 특히 강진의 청자요지에 대해서는 崔健 外, 『康津의 靑磁窯址』를 참고하라. 한편, 신덕리 요지는 1999년 해남 초등학교 변남주 선생이 지표수집한 자료를 『해남신문』 등에 기고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다음 해 國立光州博物館에 의해 본격적으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金誠龜 外, 『海南 新德里 靑磁陶窯址 精密地表調査 報告書』(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00)).

강의 河口나 해안을 낀 넓은 평야 지대 주변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퇴적지는 2~4개소 정도이지만, 그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은 직경 50~80m, 높이 3~5m 정도로 마치 작은 동산을 방불케 한다(圖 4-1~2). 窯構도 40m×2m 정도에 달하는 장대한 규모로서(圖 5), 남서해안지방의 소형 토축요와 비교하면 한 가마의 생산량이 무려 5배 정도에 이른다.<sup>9)</sup> 부곡리·중암리·도통리·창평리 등의 요지도, 요의 규모는 작은 편에 속하지만, 평야에 인접한 낮은 산록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의 원산리 요지 등과 같은 대규모 전축요 계열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서리와 용계리 요의 경우도, 전축요로 시작하여 도중에 토축요로 전환된 특수한 예이지만, 요지의 환경과 요구 및 퇴적의 규모 등은 대체로 유사하다.



圖 4-1. 용인 이동면 서리(중덕) 초기청자·백자요지. 축사 뒤편에 'm'자형의 두줄기 구름이 요지의 퇴적층이다. 이 거대한 규모의 구름은 폐기된 白磁破片과 窯道具, 耐火塼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1980년대에 호암미술관이 발굴조사하였다.



圖 4-2. 용인 이동면 서리(상반곡) 초기백자요지. 산의 경사면에 거대한 유물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다.

그 반면, 남서해안지방의 토축요

계열의 요들은 낮고 좁은 가파른 계곡과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으며 퇴적층도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편이다(圖 6-1). 요의 규모도, 초기청자를 제작하던 토축요가 발굴된 예가 없어서

9)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전축요들은 처음 신축할 당시 内部 窯床의 규모는 원산리 38.9m×1.9m, 서리 40m×1.8m, 방산동 39m×2.2m로서, 대체로 전체 길이가 약 40m이며 窯床의 폭은 2m 정도이다. 천정의 높이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대략 1.5m~1.8m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전축요들과 같이 대규모 퇴적을 형성하고 있는 원흥동과 오사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해 토축요의 경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25m×1.2m 미만의 소규모로서, 천장의 높이도 대략 1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내부 용적은 전축요가 40m×2m×1.5m=120m<sup>3</sup>이며, 토축요는 25m×1.2m×1m=30m<sup>3</sup>가 되어, 양자의 비율이 4:1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그릇을 넣었을 때, 생산량의 비율은 약 5:1이 된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11~12세기 토축요의 경우로 미루어 그 크기가 대략 25m×1.2m를 넘지 않는 소규모였을 것으로 짐작된다(圖 6-2).<sup>10)</sup> 토축요들은 이렇게 규모가 작은 반면 일정 지역 안에 30~50여 개소의 요가 밀집·분포되어 있다.<sup>11)</sup>

위와 같이 요지의 환경과 규모 등을 비교하여 보면, 전축요의 경우는 한 장소에 정착하여 대규모의 요를 1~3基 만들면서 오랜 기간 동안—초기청자시대(9~10세기) 전 기간—청자를 생산한 결과 거대한 퇴적을 남기게 되었으며, 토축요의 경우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다섯 개 정도의 소규모 제작집단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청자를 제작했기 때문에 수십 개소에 이르는 소규모 퇴적을 남기게 되었다고 생각한다.<sup>12)</sup> 사실 대표적 토축요인 강진지방의 초기청자요들은 日暈底碗을 기준으로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일정 지역 안에서 각 단계마다 십여 개의 요들이 무리를 지어 청자를 만들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소를 옮겼는데(圖 7), 그 결과 50여 개소에 요지의 자취를 남기게 된



圖 5. 시흥 방산동에서 발굴된 '芳山大窯'. 벽돌로 축조한 가마로서 처음에는 길이 39m, 폭 2m 정도의 장대한 규모로 시작하였다(崔健外, 『芳山大窯』, 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始興市, 2001).

10) 토축요의 경우 11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강진 龍雲里 제10호 요지가 1980년 발굴·조사되었으나 모두 크게 훼손되어 전체 규모는 확인할 수 없고 窯床의 폭(1.2m)만 알 수 있었다. 동일한 11세기의 요로 추정되는 해남 珍山里 제17호 요지의 경우 窯床의 길이가 24.5m이고 폭이 1.2m 남짓한 작은 규모였으며(崔盛洛·崔健, 『海南珍山里綠靑磁窯址』(木浦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 海南郡, 1992), pp. 16~29), 11세기 말기~12세기초기에 운영된 것으로 추측되는 대전시 중구 舊完洞 청자요지도 길이 17.5m 폭 1.2m에 불과하였다(崔健外, 『大田 舊完洞 窯址』(海剛陶磁美術館·大田廣域市, 2001), pp. 22~33). 이렇게 볼 때, 토축요의 窯床 규모는 길이가 25m 미만이고 폭이 1.2m 정도인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1) 토축요의 분포에 관해서는, 崔健, 『靑磁窯址의 系譜와 變遷』, pp. 10~11을 참고하라.

12) 이러한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조선시대 司囊院 分院이 있던 경기도 광주 백자요지의 분포 및 변천 과정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광주에는 초기청자를 제작한 강진 토축요와 규모 및 퇴적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은 소규모 백자요지가 약 300여 개소 분포되어 있다. 이것을 광주에서 백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15세기초기부터 조선말기까지 약 500년 동안의 窯址數로 보고, 또 10년마다 수목이 무성한 곳(樹木茂盛處)으로 분원을 옮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년 동안에 평균 약 6개 정도의 요들이 동시에 운영되었다는 말이 된다(300개소÷500년×10년=약 6개소). 다시 말하면, 분원 정착 이전까지 한 장소에서 백자요 6개소 정도가 한 그룹이 되어 10년씩 백자를 제작하다가 주변에 땀나무가 없어지면 다른 장소로 옮겨 다시 6개소 정도의 백자요를 세우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500년이 지난 후에 약 300여 개소에 백자요지가 남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광주 조선백자요의 경우와 강진 초기청자요의 경우는 대체로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圖 6-1. 대전시 중구 구원동 청자요의 퇴적층. 발굴 당시 퇴적층은 1m를 넘지 않는 작은 규모이다.



圖 6-2. 대전시 구원동 청자요. 土築窯로서 길이 17m, 폭 1.2m에 불과한 작은 가마이다. 가마의 벽과 천정은 내화점토로 축조하였다.



圖 7.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용문교에서 도적굴 계곡을 바라본 원경. 왼쪽 경사면에 용운리 21~26·50호 등 요지 7개소가 있고, 오른쪽 경사면에 27~31·48~53호 등 11개소에 달하는 초기청자요지가 밀집되어 있다.

것이다(圖 1 참조).<sup>13)</sup> 이렇게 보면, 중서부지방 전축요들의 대부분은 '定着式 大規模形'으로, 남서해안지방의 토축요들은 '移動式 小規模形'으로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

요의 환경과 생산 규모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원료와 땔나무(柴木)의 조달에 관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 가운데 청자를 만드는 二次粘土(靑磁胎土)는 우리나라 서해안·남해안 지방과 강 하구에 광범위하게 매장되어 있어서 원료 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땔나무였다. 즉 청자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땔나

13) 강진군 龍雲里를 중심으로 桂栗里·沙堂里·三興里 등에 밀집 분포되어 있는 초기청자시대의 요지는 50여 개소에 이른다. 초기청자의 경우 양식 변천 과정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표식적 기준인 日暈底碗의 형태 변화를 기준으로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崔健, 『韓國初期靑磁의分類及變遷—窯址出土品を中心に—』, pp. 45~50 및 崔健外, 『康津의靑磁窯址』, pp. 28~29의 〈略解—表·1〉類型分類表 참조. 단 후자에서는 초기청자의 변천과정을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무의 조달 문제가 요의 환경과 규모를 선택하고 존폐에 관한 결정을 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였으리라는 것이 필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다. 조선시대의 유일한 官窯인 司饗院 分院의 경우에도, 요의 운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역시 땀나무 조달에 관한 것이었다.<sup>14)</sup> 따라서 요의 위치를 선정하는 데에도 나무가 무성한 장소인지가 무엇보다 앞서 고려되었으며, 한 장소에 요를 설치한 후 10여 년 정도 지나서 가까운 주변에 나무를 모두 베어 써버리면 다시 나무가 많은 다른 장소로 생산시설 전체를 이동하는 체제로 요를 운영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분원이 설치된 지역에 약 300여 개소에 달하는 요지유적이 남게 된 것이다(圖 8).<sup>15)</sup> 이러한 점을 중시하면, 요구와 퇴적의 규모에서 조선시대 분원 백자요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초기청자의 '移動式 小規模形' 토축요들이 일정 지역 안에서 일정 기간을 주기로 이동하였던 것도 땀나무의 원활한 조달이 그 주된 목적이었음이 분명해진다.

그러면 대규모 博築窯의 경우는 땀나무의 조달을 어떻게 해결한 것일까. 사실 한 장소에서 백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청자를 생산하여<sup>16)</sup> 기대한 퇴적을 남긴 '定着式 大規模形'의 窯에서 그 막대한 量의 땀나무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조달했을까 하는 문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조선시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실에서 운영하던 司饗院 分院조차도 땀나무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窯와 작업장 등의 생산시설 전체와 인원을 나무가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체제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른 지역에서 땀나무를 구하여 운반해 오거나, 아니면 요가 위치한 주변에 계획적으로 植樹하여 땀나무를 생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다.<sup>17)</sup> 이 가운데 '定着式 大規模形' 전축요에서 어느 방식으로 이 분

14) 磁器를 제작하는 데에는 막대한 양의 柴木(땀나무)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司饗院 分院의 경우에도 땀나무가 많은 곳을 찾아 제작시설 자체를 옮기고 아울러 제작에 관여한 인원 전체가 이동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땀나무 문제는 심각한 것이었다. 따라서 인원 문제도 땀나무를 공급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게 마련이었다. 예컨대, 肅宗 23년(1697)경 분원의 주변에는 분원에 전속되지 않은 인원까지 합하여 천여 명의 인구가 별도로 하나의 촌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가운데 대다수는 땀나무를 조달하는 일에 종사하던 인원으로 추측하고 있다(姜萬吉, 「王朝後期 分院의 運營實態」, 『朝鮮時代商工業史研究』(한길사, 1984), pp. 81~91 및 「分院研究 - 17, 18世紀 朝鮮王朝 官營手工業體의 運營實態」, 『亞細亞研究』 20(1965)과 宋讚植, 「官營手工業의 民營化 課程」,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研究』(서울대학교 出版部, 1973); 『朝鮮後期社會經濟史의 研究』(一潮閣, 1997), pp. 315~325 참조). 이는 땀나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삼백여 명에 이르는 기술자와 役夫 등 분원에 전속된 인원 외에도 주변에서 수시로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음을 시사한다.

15) 분원이 설치되었던 곳은 10년이 지나면 근처 수십 리 주변에 나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흙뿌리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다른 樹木茂盛處를 찾아서 생산시설을 옮기는 것이 관행이었다(姜萬吉, 「王朝後期 分院의 運營實態」, pp. 81~83, 宋讚植, 「官營手工業의 民營化 課程」, pp. 307~310 참조).

16)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원산리요지·방산대요·서리요지와 같은 대표적 전축요의 운영기간은 최소한 100년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청자의 편년문제에 대해서는註 25)를 참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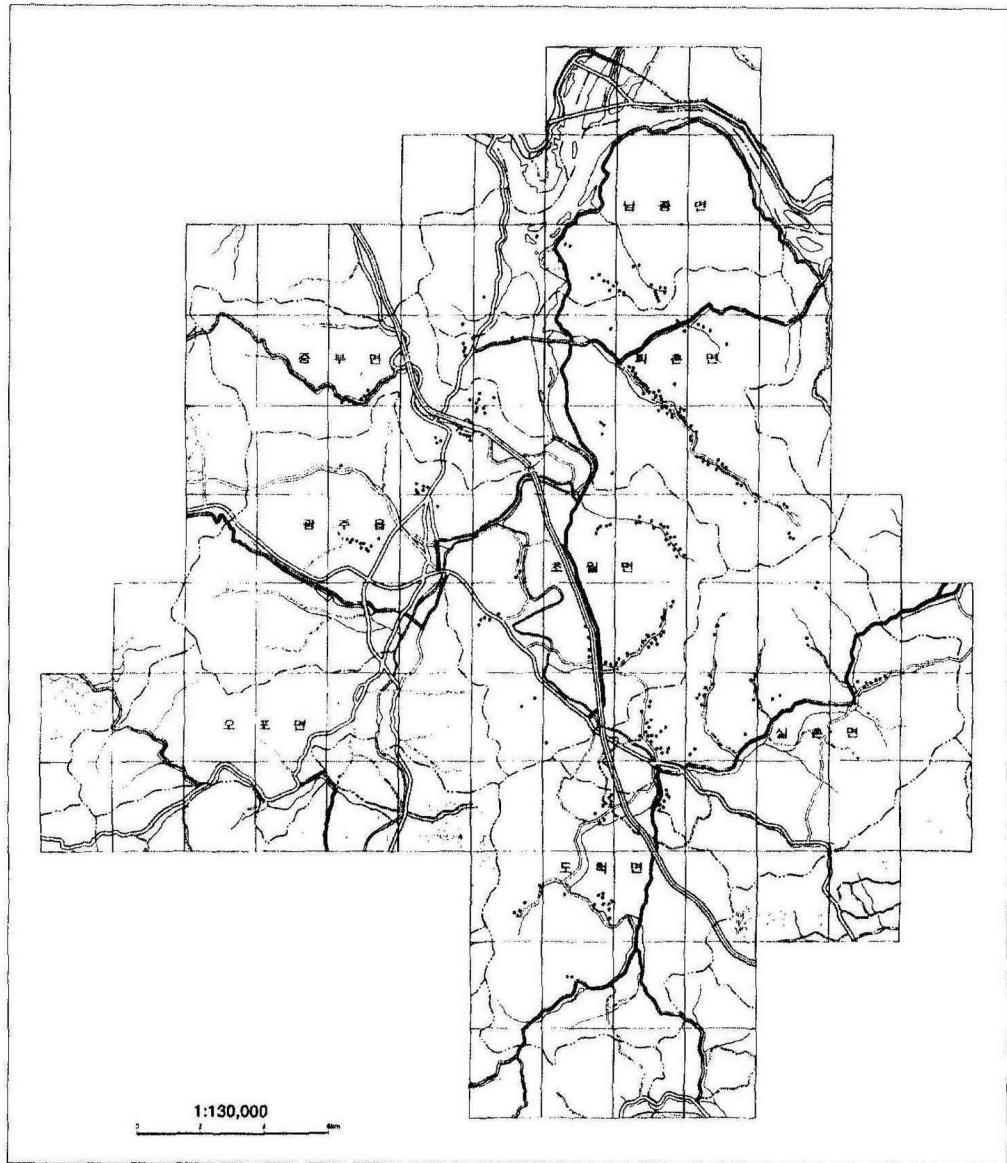


圖 8.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과 6개 면에 분포하고 있는 289개소의 백자가마터 분포도.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가마터는 1985년 국가사적 제314호로 지정되었다(『京畿道廣州中央官窯』, 窯址地表 調査報告書, 地圖篇, 국립중앙박물관·경기도박물관, 1999, p. 12의 <中央官窯分布圖>를 인용함).

17)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은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司饗院 分院의 경우도 18세기에 접어들어 분원 주변에서 땀나무 조달이 어렵게 되자 불가피하게 땀나무를 먼 곳에서 운반해 오는 방법을 취하였다. 바로 牛川江을 통해 운송해온 땀나무, 즉 '水上柴木'을 쓰기에 이른 것이었다. 한편, 植樹 계획도 수립한 바가 있었으나, 나무를 베어낸 후 화전민들이 들어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처음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姜萬吉, 『王朝後期 分院의 運營實態』, p. 85 참조), 설사 植樹를 한다고 하여도 10년 동안 자란 어린 나무로서 磁器窯의 땀감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로 미루어볼 때, 원산 리요나 방산동요와 같은 대규모 진축요의 경우도 계획적인 植樹를 통하여 땀나무를 조달하거나 먼 곳에서 운반해 오는 방법 밖에 없었을 것임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제를 해결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경우라도 많은 인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점이다.<sup>18)</sup> 이 점은 이 전축요 계열 요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하여 깊이 유념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요의 환경과 규모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요를 쌓기 위한 築窯材와 築窯法에 관한 것이다. 토축요의 경우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쉽게 채취할 수 있는耐火도가 높은 粘土를 주된 재료로 사용하였다. 즉 싸리나무 등을 엮어 아치형 구조물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점토를 쌓아 요를 지었는데, 전축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요의 내구성이 약하고 규모가 작아지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소규모의 인력과 비용으로 손쉽게 요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동해야 했던 토축요의 경우에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圖 9).

그러나 전축요는 일정한 규격으로 가공한 耐火磚을 사용하여 대규모 요를 쌓았기 때문에(圖 10) 토축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밀한 기술과 많은 인력뿐만 아니라 막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였다. 예컨대 대규모 전축요 1기를 쌓는 데에는 15,000~18,000여 개의 내화전(20×20×5cm)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9)</sup> 이 방식으로 요를 쌓을 경우 요구의 내구성이 강하고 대규모 요를 만들 수 있다



圖 9. 土築窯인 강진 용운리 10-1호요의 側面壁. 주로 耐火粘土를 사용하지만 벽의 중심부에는 廢匣鉢을 모감재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 18) 註 14) 참조. 그리고 『承政院日記』에는 광주 분원이 현재의 분원리에 정착하기 이전, 즉 맨나무가 많은 장소로 옮겨 다니던 기간에는 분원 주위에 전축·비전축의 인원을 합하여 천여명 있었다고 전하는데(『承政院日記』 370冊 肅宗 23년 윤3월 6일조 참조), 그들 대다수는 맨나무를 조달하는 일에 동원되는 예비 인원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분원의 백자요보다 4배정도 큰 규모였던 전축요에서 맨나무 마련에 매달려야 할 인원이 그의 몇 배가 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19) 토축요의 경우 耐火粘土를 잘 이겨서 쌓지만, 전축요는 벽돌로 쌓기 때문에 벽돌을 제작하는 데 많은 비용과 노동력이 들뿐만 아니라 요의 규모가 큰 만큼 높은 수준의 전문적 기술도 필요하다. 특히 벽돌을 찍은 후 공기 중에서 건조시키거나(日乾), 약 700℃ 정도로 초벌구이를 하게 되는데(假燒), 日乾도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만, 假燒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막대한 제작비용이 들게 된다. 필자는 방산동요지를 발굴하면서 耐火磚의 日乾 또는 假燒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예컨대, 조선시대 백자요는 日乾 내화전(方形 또는 참외 모양의 망송이 등)으로 축조하는데, 이 경우 요의 폐기물 퇴적에서 처음 형태(방형 또는 망송이 모양)를 유지한 내화전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점을 중시하면, 완전하게 형태를 유지한 내화전이 남아있는 방산동요의 경우에는 日乾 보다 假燒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는 장점이 있지만, 소규모 토축요에 비하면 시설 규모가 커서 이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막대한 양의 땀나뭇을 조달하고 아울러 대량생산을 해야 하는 부담을 함께 갖고 있었다.



圖 10. '芳山大窯'의 측면窯壁. 塼築窯는 내벽과 외벽까지 완전히 벽돌을 쌓아 축조하였으며, 보수 또는 개축할 경우에도 한번 사용했던 벽돌을 재활용하여 쌓는 것이 원칙이다.

### 3) 窯道具와 燔法(窯積法) 및 生産量

자기 생산에 있어서 窯道具와 燔法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초기청자시대 요지 퇴적물의 대부분이 上品 磁器 생산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耐火匣鉢—소량의 陶枕을 포함하여—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요도구의 성격은 곧 요의 성격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감발과 도침의 상태를 생산품과 함께 연관지어 관찰하면 각 요의 생산품에 대한 품질이나 기술의 영향 분제와 요의 계열 등을 파악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물론 감발 자체의 형식과 사용 방법 등도 상대 편년에 결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초기청자의 주요 생산품은 碗과 鉢 그리고 椀匙 등 飲食器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甁과 缸 등 貯藏容器의 생산량은 아주 적다. 따라서 요도구의 경우에도 생산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碗과 鉢, 椀匙 등 소형 음식기들을 효과적으로 구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는데, 匣鉢과 匣鉢받침과 陶枕이 그것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筒形匣鉢과 床形匣鉢받침〉(圖 11-1·2)으로서, 전축요와 토축요 계열의 요에서 같은 규격과 형태의 것들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床形匣鉢받침은 초기청자시대에만 사용되었지만, 筒形匣鉢은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다가 13세기 후반 匣燔의 폐지와 함께 소멸되는 청자시대의 대표적 요도구이다.<sup>20)</sup> 이와 달리 〈鉢形匣鉢과 菌形匣鉢받침〉(圖 11-3·4)은 전축요에서만 사용되었던 특별한 형식으로 전축요 소멸과 함께 사라진 것이며, 아직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투구 형태의 〈鉢形뚜껑〉과

20) 匣燔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청자를 제작할 때부터 사용해온 방법이다. 匣燔의 폐지는, 硃石받침법의 폐지와 더불어, 고급기술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자의 보편화와 대량생산의 결과이다. 13세기 후반인 1269년부터 1295년 사이에 제작된 이른바 「干支」銘靑磁에서 匣燔이 폐지되고 例燔과 常燔만 지속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崔健, 「高麗時代後期 象嵌靑磁와 陶磁觀에 대하여」, pp. 122~123 및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p. 8, 李喜寬, 「高麗後期 己巳銘 象嵌靑磁의 製作年代問題에 대한 새로운 접근」, pp. 23~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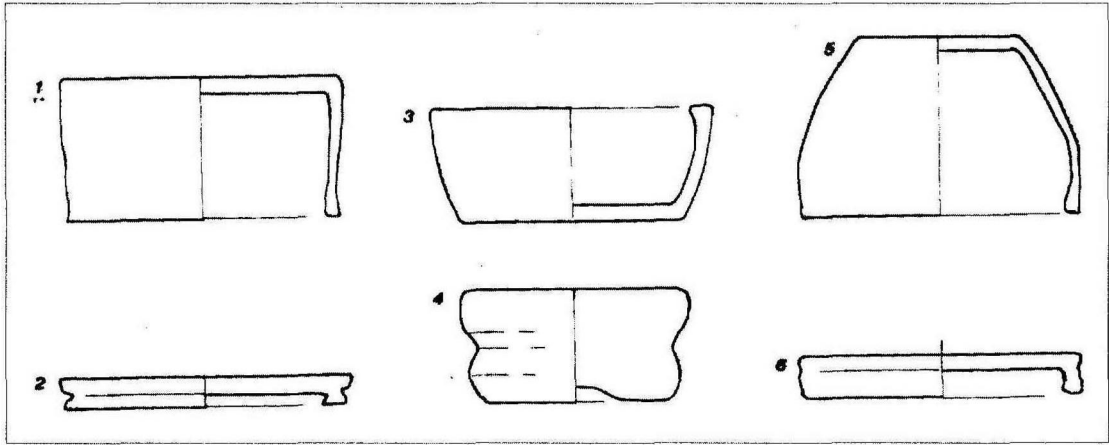


圖 11. 窯道具. 1과 2는 筒形匣鉢과 床形匣鉢받침, 3과 4는 鉢形匣鉢과 菌形匣鉢받침, 5와 6은 鉢形뚜껑과 床形뚜껑.

〈床形匣鉢받침〉과 형태가 유사한 〈床形뚜껑〉도 전축요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圖 11-5·6). 이렇게 다양한 것 같이 보이지만 초기청자의 대표적 갑발은 역시 〈筒形匣鉢과 床形匣鉢받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릇 받침의 기능을 하는 陶枕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전축요의 경우 大形器皿을 받치기 위한 특수한 형태의 床形陶枕(床形匣鉢받침을 변형한 것)이 일부 사용된 예가 있지만, 土築窯와 같은 陶枕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토축요에는 소형 음식기는 물론 대형기명을 받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圓盤形 陶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圖 12).

이와 같이 요도구도 요의 계열에 따라 사용한 종류가 한결같지 않았다. 즉, 전축요에는 〈筒形匣鉢과 床形匣鉢받침〉 그리고 〈鉢形匣鉢과 菌形匣鉢받침〉이 서로 세트를 이루고, 토축요에는 〈筒形匣鉢과 床形匣鉢받침〉 그리고 〈圓盤形陶枕〉이 한 세트가 되어 분명한 구분이 있었던 것이다(圖 13).

이 세 가지 요도구는 형태가 다른 만큼 기능도 각각 다르다. 筒形匣鉢에는 초기청자의 표식적 기종 가운데 하나인 日暈底 계통의 碗을 넣는데, 이 碗은 다른 기종들에 비해 가장 질적으로 우수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上品이다. 鉢形匣鉢에는 대체로 우수한 품질의 鉢을 두 개씩 포개어 놓으며, 위에 놓인 鉢은 上品으로, 아래에 포개진 鉢은 下品으로 구분한다.<sup>21)</sup> 그러나 갑발과 같이 외부로부터 보호 기능이 없는 陶枕에는 대부분 鉢이나 접시 등을 5~6개씩 포개어 놓는데, 가장 위에 놓여진 것은 中品이며, 그 아래부터 포개진 것들은 下品이다. 이러한

21) 자기의 품질 구분은 제작 방법에 따라 上品·中品·下品으로 구분된다. 즉, 상품은 匣燻이며, 중품은 例燻, 하품은 常燻을 가리킨다(崔健,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pp. 5~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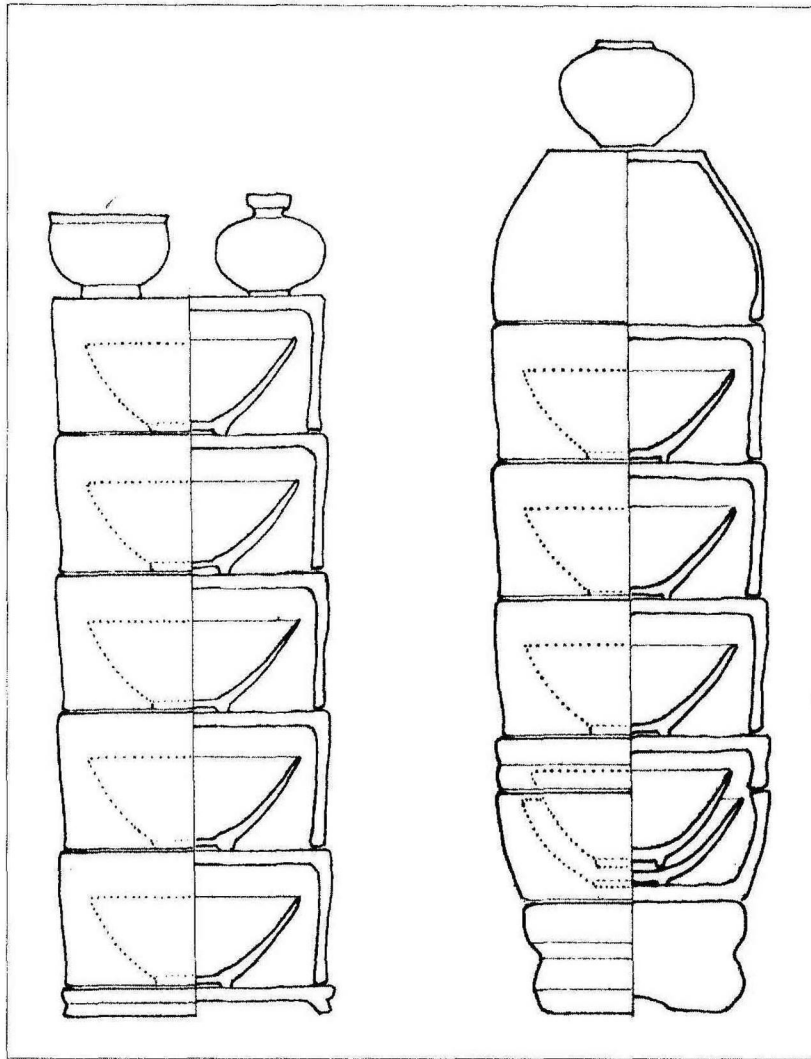


圖 12. 初期靑磁의 경우 土築窯와 塼築窯의 匣鉢 사용법은 각각 다르다. 1은 土築窯의 窯積法 개념도이며, 2는 塼築窯의 窯積法 개념도이다.

품질 분류 방법과 窯構 규모와 요도구의 사용법을 함께 고려하면, 해당 요에서 한 번에 구워 낼 수 있는 생산량뿐만 아니라 품질 구분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결과를 통하여 각 요의 생산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까지 짐작이 가능하다.

窯構의 내부(봉통과 煙道를 포함한 窯床의 규모)가  $40\text{m} \times 2.2\text{m}$ 에 이르는 전축요(방산동)의 경우, 日暈底碗을 한 점씩 넣을 수 있는 筒形匣鉢은 가마 한 칸에 600개 정도 쌓을 수 있으므로 600점의 일훈저완을 구워낼 수 있고, 鉢形匣鉢에는 鉢을 두 점씩 포개서 한 칸에 1,200개를 넣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7칸짜리 전축요에서 筒形匣鉢과 鉢形匣鉢을 1:1로 넣었을 경우 碗 2,100점, 鉢 4,200점을 내어 총생산량은 6,300점이 된다. 한편, 규모가  $20\text{m} \times 1.2\text{m}$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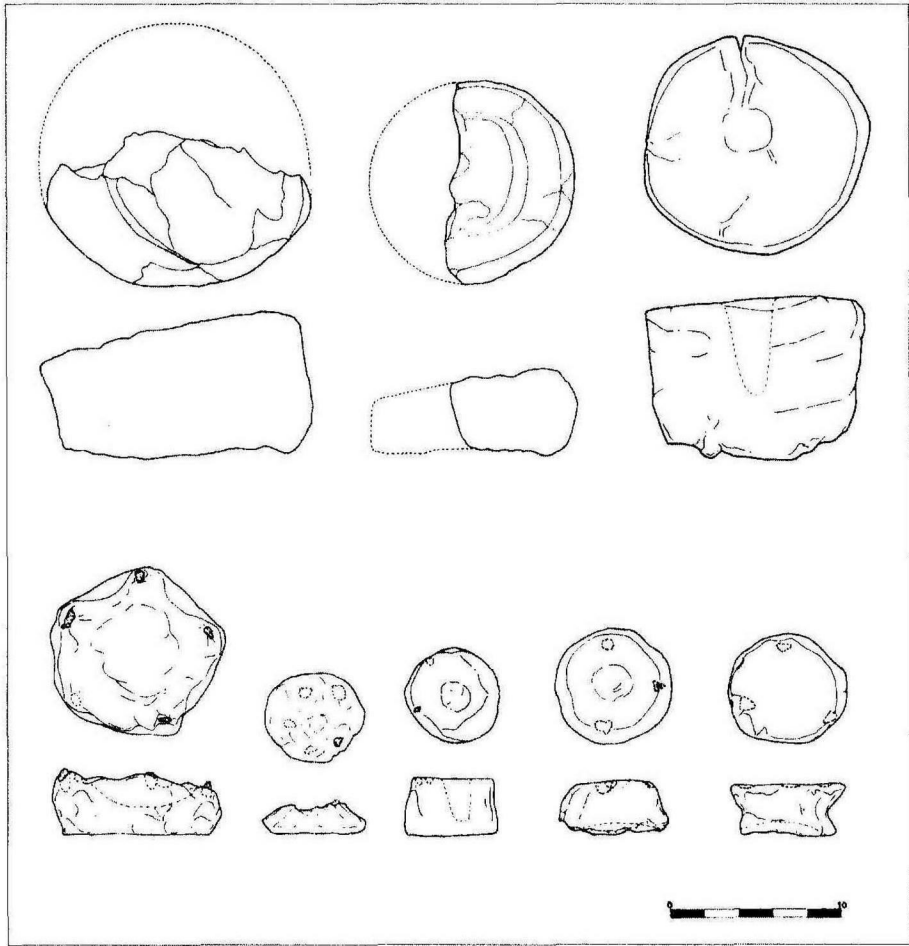


圖 13. 강진 용운리 초기청자요 출토 窯道具

토축요의 경우는, 한 칸에 筒形匣鉢 240개를 쌓아 240개의 碗을 구워낼 수 있고, 陶枕 108개에 발을 5점씩 포개어 쌓으면 한 칸에 540개의 鉢을 낼 수가 있다. 그러면 5칸짜리 토축요에서는 筒形匣鉢과 陶枕을 1:1의 비율로 넣을 경우 모두 1,950점의 碗과 鉢을 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전축요의 약 31%에 해당하는 생산량이다.<sup>22)</sup> 이러한 전체 생산량을 다시

22) 이러한 계산은 해강도자미술관에서 발굴 조사한 지흥 방산동 요지의 窯構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요는 두 차례 보수하면서 마지막 窯床의 폭이 90cm까지 좁혀졌는데, 이 때의 窯床에 원통형 갑발(22cm×10cm) 3개의 흔적이 한 줄씩 나타나 있었다. 이것을 기준으로 처음 요의 생산량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방산동요의 한 칸의 길이는 440cm이며 땀감을 넣는 자리를 제하면 약 400cm가 되어 窯床은 400cm×220cm가 된다. 여기에 匣鉢을 한 줄에 8개씩 15줄을 놓고, 천정의 높이를 약 150cm로 추정하여 한 줄에 같은 규격의 갑발을 5개 쌓으면 한 칸에 모두 600개의 갑발을 넣을 수 있다(8개×15줄×5=600개). 따라서 7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산동요에는 모두 4,200개의 갑발을 넣을 수 있다(600개×7칸=4200개). 방산동요의 경우, 筒形匣鉢에 日暈底碗을 한 개씩 넣고, 鉢形匣鉢에는 두 개의 鉢을 포개어 넣

품질별로 구분하면, 전축요는 匣燔 上品 4,200점, 常燔 下品 2,100점을 낼 수 있고, 토축요는 上品 600점, 中品 270점, 下品 1,080점을 내게 된다.<sup>23)</sup>

이러한 품질별 생산량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전축요의 경우가 토축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전체 생산량 가운데 上品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그 점유율이 토축요의 경우는 31%에 불과한 반면 전축요의 경우는 그 두 배가 넘는 67%에 이르고 있으며, 上品의 생산량에 있어도 전축요의 경우가 토축요의 경우보다 무려 7배 정도나 되었던 것이다. 이 점은 전축요의 생산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 준다. 즉 대규모의 전축요가 지향하고 있던 바는 바로 그러한 匣燔 上品의 고급청자를 대량생산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 4) 初期靑磁窯의 推移

이제까지 초기청자 窯址의 분포와 환경 그리고 퇴적 규모와 窯道具 및 생산품의 量과 質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축요와 토축요 계열의 상대적 특징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 양대 계열의 요들이 공존한 기간은 그다지 오래였던 것 같지는 않다. 앞서 잠시 말한 바와 같이 전축요 계열은 이미 고려 초기에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24)</sup>

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筒形匣鉢과 鉢形匣鉢을 같은 비율로 넣을 경우, 한 번에 구워낼 수 있는 청자는 匣燔의 일훈저완 2,100개, 匣燔의 鉢 2,100개, 常燔의 鉢 2,100개로 모두 6,300개가 된다. 한편, 窯床이 350cm×120cm 남짓한 토축요의 경우, 갑발은 한 줄에 4개씩 12줄을 놓고 한 줄에 5개씩 쌓으면 한 칸에 240개를 넣을 수 있다(4개×12줄×5=240개). 그러므로 5칸으로 이루어진 토축요에는 모두 1,200개의 갑발을 넣을 수 있다(240개×5칸=1200개). 반면에 陶枕의 사용하여 한 칸을 채울 경우에는, 陶枕은 한 줄에 6개씩 18줄을 놓아 모두 108개를 넣을 수 있고(6개×18줄=108개), 각 陶枕에 5개씩의 鉢을 포개면 모두 540개의 鉢을 넣을 수 있으므로(108개×5개=540개) 5칸의 토축요에 넣을 수 있는 鉢은 모두 2700개가 된다(540개×5칸=2700개). 그러므로 匣鉢과 陶枕을 1:1로 넣을 경우, 한 번에 匣燔의 일훈저완 600개, 例燔의 鉢 270개, 常燔의 鉢 1,080개, 총 1,950개의 일훈저완과 鉢을 구워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3) 사실 품질 구분에 따른 요의 생산 목표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었는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은 특정 요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磁器所로 편제되어 중앙에 청자를 貢納하던 강진 지역의 窯들의 경우, 대부분 匣燔과 例燔·常燔이 공존하는데, 최고급의 匣燔 청자만을 생산하던 요가 있는 반면, 常燔만을 전문적으로 한 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강진 지역을 제외하면 匣燔은 아주 드물며, 대부분이 常燔·例燔을 포함하여 이다. 이러한 관행은 匣燔 磁器가 '御用之器'로 규정되어 있던 조선 시대에 더욱 철저하게 지켜졌다. 광주 分院의 경우도 내게 한 집단에 匣燔을 전문으로 한 요는 1~2개소이고 나머지는 常燔의 요로 추정되고 있으며, 광주 지역 외에는 아예 匣燔의 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을 중시하면, 磁器窯에서 품질 수준을 말하는 匣燔·例燔·常燔의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잘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

24) 註 7)의 발굴 조사 보고서와 논문 참조. 그리고 초기청자의 편년문제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韓國陶

전축요 계열의 소멸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원산리 요지이다.<sup>25)</sup> 1989년에 발굴된 원산리 제2호 요지의 가장 아래 층인 제1·2층에서는 良質 釉胎의 청자화형접시 등이 출토되었고, 그 위 층인 제3층에서 고려 제3대왕인 定宗(946~949)의 安陵에서 출토한 청자와 유사한鉢과 화형접시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최상층인 제4층에서 992년에 제작된 것이 분명한 <靑磁「淳化三年」銘祭器>들이 발견되었다(圖 14). 발굴 보고자는 이 요의 생산기간이 최소 일백 년이 넘으며, 10세기말기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26)</sup> 물론 이 요가 처음 운영되기 시작한 시기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소멸하게 되는 하한이 10세기 말경이라는 점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원산리요와 동일한 전축요 계열인 방산동요의 경우에도 遺構와 유물의 형식이 원산리요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므로 방산동요의 경우도 원산리요와 거의 같은 성장과 소멸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원산리 제2호 요지의 최상층과 제3·4호 요지의 청자가 갑자기 粗質化하다가 廢窯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방산동 요지 최상층 유물의 조질화와 폐요 현상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 두 요지의 청자에 모두 10세기 후반 이후의 새로운 중국청자 양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중서부지방의 전축요들은 10세기말기에 급속히 쇠퇴하여 늦어도 11세기초기 이전에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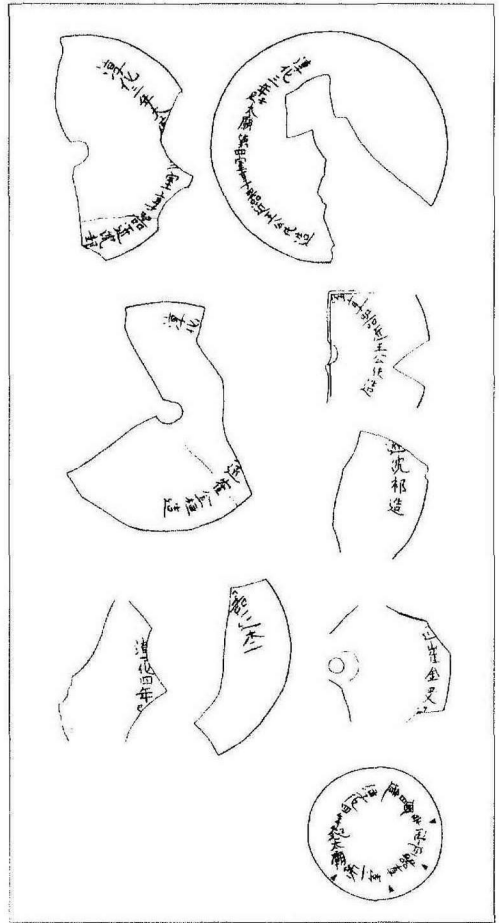


圖 14. 원산리요지 출토 <「淳化」銘靑磁片>(南秀雄, 『圓山里窯跡と開城周邊の靑磁資料』, 『東洋陶磁』 Vol.22, 1994, p. 144에서 재인용), 「淳化三年(992)」과 「淳化四年(993)」의 절대연대가 새겨진 祭器(享器) 16점이 발견되었다.

磁史研究會編, 『韓國磁器發生에 관한 諸問題』 제1회 東垣기념학술대회발표요지(1990)을, 그 연구 경향과 연구자에 대해서는, 崔健, 「高麗靑磁의 發生問題 -고려청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美術史論壇』 創刊號, pp. 269~294를 참조하라.

25) 원산리 요지에 대해서는 김영진,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기가마터발굴 간략보고」 및 『조선도자사 연구』 三國~高麗, pp. 129~138, 南秀雄, 「圓山里窯跡と開城周邊の靑磁資料」 참조.

26) 김영진,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기가마터발굴 간략보고」, p. 8~9 참조.

27) 원자는 博築窯 계열의窯들이 10세기말기~11세기초기에 쇠퇴·소멸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崔健, 「韓國初期靑磁의分類と變遷-窯址出土品を中心に-」, pp. 50~54 및 「靑磁窯址의系譜와展開」, p. 11).

중서부지방 전축요들이 소멸한 이후에도 남서해안지방의 토축요들은 계속되었다. 토축요들이 한국 청자의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이다. 물론 그 동안 토축요 계열의 내부에서도 작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강진지방의 청자요와 함께 토축요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던 해남군 신덕리요들이 늦어도 중서부지방의 전축요가 소멸되기 이전에 이미 廢窯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sup>28)</sup> 이로써 10세기말기부터 11세기초기 사이에 강진지방의 토축요가 청자생산의 중심적인 요로 부각되기에 이른 것이다.

### Ⅲ. 中西部地方 靑磁窯의 消滅과 그 背景

앞장에서 검토를 통하여 우리는 고려초기에 강진지방의 토축요 계열 청자요가 청자 생산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중서부지방의 전축요 계열 청자요의 소멸과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규모나 생산구조 등의 측면에서 강진지방의 청자요에 비해 오히려 우위에 있었던 중서부지방의 청자요가 소멸의 길을 걷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 의문이 본 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서부지방 청자요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sup>29)</sup> 그리고 각별히 그 청자요의 운영주체가 누구였는가 하는 점을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관심을 기울여 보아야 할 것은, 앞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청자요들이 중서부지방에 해안선을 따라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점을 가

28) 신덕리에 분포하는 30여 개소(추정)의窯에서는 초기청자의 표식적 유물인 日暈底碗을 동반하면서 부분적으로 黑釉磁도 제작되었다. 현재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유물의 상황이 강진의 초기청자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지만, 器種이 다양하지 않고, 丸彫連瓣文도 나타나지 않으며 완전한 素文이다. 이러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른바 日暈底 형식의 쇠퇴과정에서 輪形底 형식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덕리요는 1998년 알려지기 시작하여 해남 초등학교 교사 변남주 선생이 최초로 보고하였고(『해남신문』 410~419호, 1999). 필자도 변남주 선생의 호의로 지표 수집한 자료를 볼 수 있었다. 그 후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서 정밀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海南 新德里 靑磁陶窯址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00).

29) 사실 중서부지방 청자요의 성격을 밝히는 일은 이 장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서부지방 청자요의 소멸과 그 배경에 대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청자의 기원과 전개과정 자체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이 요들이 강진지방 청자요와 더불어 우리나라 청자의 발생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청자생산을 떠받친 양대 축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서부지방 청자요의 성격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별다른 논증 없이 이 요들이 官窯였다거나(徐聖鎬,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7), pp. 44~45 참조), 磁器所에 속해 있던 요였다(홍희유,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지양사, 1979), pp. 89~90, 南秀雄, 『圓山里窯跡と開城周邊の靑磁』, p. 116 참조) 그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견해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고에서 중서부지방 청자요의 성격에 좀더 깊이 천착해보고자 한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이 窯들은 하나같이 중국 越州窯系의 博築窯로서 구조가 동일하였다. 그리고 그 개설 시기와 소멸 시기가 큰 차 없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소멸 과정에서도 거의 동일한 길을 밟았던 것으로 보인다.<sup>30)</sup> 게다가 거기에서 생산한 청자들의 경우도 품질이나 器種·器形·釉胎 등의 측면에서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 이러한 점들은 문제의 중서부지방 청자요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닌 것들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이와 같은 견지에 서면, 우리는 중서부지방 청자요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가 있다. 우선 그 청자요들이 직접·간접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것들이 조선시대의 司饗院 分院의 경우와 같이 국가가 직접 전 생산과정을 관리·감독한 官窯였거나, 고려시대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도자기를 제작하여 貢納하던 磁器所로서 청자요였을 가능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것이 특정 개인에 의해서 운영된 私窯였을 경우이다. 이들 가운데 과연 실제로 있어서 중서부지방의 청자요들은 어느 성격의 窯였을까.

먼저, 중서부지방의 청자요들이 官窯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이 경우에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당시 고려국가에서 그와 같이 많은 수의 대규모의 청자요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많은 양의 官需用 청자가 필요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청자요에서의 청자 생산이 중단되었다면, 그것은 의당 그 생산량을 메울 수 있는 다른 관요들을 설치하였거나, 그 관요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청자생산시설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시 말하면, 중서부지방의 청자요가 아니더라도 이미 官需用 청자를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는 다른 관요나 청자생산시설이 확보되어 더 이상 그 청자요들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廢窯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이 시기에 중서부지방의 청자요에서 제작하던 것과 같은 고급 청자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요가 설치되어 있던 흔적은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sup>31)</sup> 뿐만 아니라 소멸된 그 관요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청자생산시설, 예컨대 새로운 磁器所 등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sup>32)</sup> 이 점을 중시하면, 중서부지방의 청자요가 관요였다고 보기

30) 본고 제II장 제4절 참조.

31) 이 시기에 소규모의 청자요들이 전국에 설치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중서부지방의 청자요들이 廢窯된 뒤의 일로서 이해되고 있다(崔 健,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pp. 11~13 참조).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청자들 또한 하나같이 관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기에 품질이 떨어지는 粗質靑磁였다. 그러므로 이 청자요들을 관요로 보기는 어렵다.

32) 다만 이 시기에 강진지방의 자기소에서 소규모의 청자요가 증설된 것으로 보인다. 중서부지방의 청자요가 소멸하는 시점—10세기말기~11세기초기—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의 강진지방 청자요의 수가 49개 소였던 반면, 그 이후 시기—11세기—의 청자요의 수는 136개소로 늘어나기 때문이다(崔 健, 「靑磁窯址

는 힘들지 않을까 추측된다. 또한 지방에 국가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던 이 시기에 국가에서 중서부지방의 여러 곳에 적지 않은 대규모의 관요를 설치·운영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거니와,<sup>33)</sup> 그 때에 이르러 갑자기 대부분의 관요를 소멸시킬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점들도 그것들이 官窯였을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한다.

그러하기는 그것들이 磁器所의 청자요였을 가능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기록을 보기로 하자.

A 銅·鐵·瓷器·紙·墨 등의 雜所는 別貢物色을 징수하는 것이 지나쳐서 匠人들이 고통스러워 도피하니, 바라건대 所司는 각 所의 別貢과 常貢의 많고 적음을 酌定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高麗史』 78 食貨志 1 貢賦 睿宗 3년 2월 判)

위 기록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磁器所의 別貢物色을 징수하는 것이 지나쳐서 所의 匠人들이 고통스러워 도피하였다는 대목이다. 別貢은 매년 공납하는 물품과 그 수량이 일정하게 책정되는 常貢과 달리 관부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부과되는 공물이었다. 이러한 성격의 別貢의 징수가 그와 같이 지나쳤다는 것은 그만큼 官需用 청자의 수요가 많았음을 의미한다.<sup>3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가에서 이처럼 적지 않은 수의 磁器所 청자요들을 거의 동시에 소멸시켰을까. 이것은 커다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磁器所에서 도자기를 생산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곳은 더 이상 磁器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 所가 일반 郡縣으로 승격했음을 뜻하는

의 系譜와 展開], pp. 10~13). 하지만 그것도 중서부지방의 청자요가 소멸된 이후의 일이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崔健,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pp. 11~13 참조).

33) 사실 고려시대의 경우는 조선시대의 司饔院分院과 같이 자기를 생산하기 위한 官窯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점 자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高麗史』에 보이는 甄官丞이라는 관직이나 諸窯(六窯)라는 관칭을 통하여 관요의 존재를 상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실제로 있어서 徐聖鎬는 成宗대에 金殷傳가 甄官丞이라는 관직을 역임한 사실로부터(『高麗史』 94 金殷傳傳) 甄官署라는 관청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것을 기와나 도자기류의 공급을 맡은 관청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諸窯(六窯)도 甄官署와 같은 직능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거기에는 여러 곳에 설치된 관요가 속해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徐聖鎬,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pp. 22~23 및 pp.44~45 참조). 이 가운데 甄官署가 陶磁器의 공급을 맡았는지는 불분명하다. 중국의 경우도 甄官署는 瓦塼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관청이었다. 諸窯(六窯)가 도자기의 공급을 맡았을 가능성은 그 官廳名으로부터 충분히 상정할 수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있어서 그러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체가 되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당시 관요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까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홍희유가 언급한 바와 같이, 諸窯(六窯)는 단지 磁器所나 瓦所를 통제·관리하던 관청이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홍희유, 『조선중세수공업사 연구』, pp. 89~90 참조. 단 홍희유는 諸窯와 六窯를 서로 다른 관청으로 보고, 諸窯에서는 磁器所를, 六窯에서는 瓦所를 통제·관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려시대의 磁器所나 瓦所가 조선시대의 사용원분원과 같은 관요와는 성격이 달랐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34) 물론 사료 A는 12세기에 집어든 직후의 사정을 말하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정이 이 시기만의 특징적인 것이었다고 볼 까닭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것이다. 그러나 10세기말기에 11세기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그렇게 많은 수의 磁器所가 일시에 군현으로 승격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도 없거니와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sup>35)</sup> 이러한 견지에서 중서부지방의 청자요들이 磁器所로 편제되어 있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소멸된 중서부지방의 청자요가 官窯이거나 磁器所의 청자요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그것은 私窯였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sup>36)</sup>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청자

35) 고려시대에 所에서 郡縣으로의 승격은 所의 주민이 공을 세우거나 하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해지는 일이었다. 이 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北村秀仁, 『高麗時代の「所」制度について』, 『朝鮮學報』 50(朝鮮學會, 1969), pp. 15~18를 참조하라.

36) 그런데 이러한 이해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록이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끈다.

a)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匠王公托造

b)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

자료 a)는 원산리 제2호 요지의 최상층인 제4층에서 발굴된 〈靑磁「淳化三年」銘祭器〉에 새겨 있는 명문이고, 자료 b)는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所藏의 〈靑磁「淳化四年」銘壺〉의 밑바닥에 새겨진 명문이다. 〈靑磁「淳化四年」銘壺〉도 원산리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원산리 요지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명문이 있는 靑磁祭器片 14점이 더 발굴되었다(南秀雄, 『圓山里窯跡と開城周邊の靑磁窯跡』, pp. 113~115). 자료 a)는 淳化 3년(992)에 太廟 제4실의 享器(祭器)를 匠人인 王公托이 만들었다는 내용이고, 자료 b)는 淳化 4년(993)에 太廟 제1실의 享器(祭器)를 匠人인 崔吉會가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고려의 역대 왕을 모신 太廟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成宗 8년(989)부터 짓기 시작하여 3년 후인 同王 11년(992)에 완성하였다(太廟의 조성과정에 대해서는 南秀雄, 『圓山里窯跡と開城周邊の靑磁窯跡』, p. 115 참조). 자료 a)와 b)의 명문이 새겨 있는 祭器는 바로 이 太廟에서 지내는 제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그릇이었다. 이 점만을 놓고 일핏 보면 그러한 용도를 가진 祭器를 생산한 원산리요는, 이제까지 대다수의 학자들이 별 의심 없이 그려왔던 것처럼, 私窯보다는 官窯나 磁器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일지도 모르겠다(徐聖鎬,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pp. 44~45, 홍희유,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 pp. 89~90, 南秀雄, 『圓山里窯跡と開城周邊の靑磁』, p. 116 참조). 하지만 이 점은 그렇게 쉽게 단정할 일이 못된다. 우선 원산리요가 관요였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에 磁器의 생산을 위한 관요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자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앞의 註 33) 참조). 이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원산리요가 관요였을 것이라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설사 이 점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그 경우 무엇보다도 원산리요가 太廟의 祭器를 제작한 직후인 10세기말경에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설명하기가 힘들다. 사실 원산리요가 관요였다면, 이 요는 전국에 있는 어느 요보다도 관요로서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원산리요는 관요에서 생산한 청자의 최대 수요처이자 수도인 開京과 至近 거리에 있었다. 원산리요는 禮成江을 사이에 두고 개경을 마주보고 있었다. 이는 또한 원산리요가 국가에서 통제하기가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원산리요는 땀나뭇나 생산한 청자를 운반하는 데 매우 편리한 수상교통로를 갖추고 있었다. 원산리요의 근지를 지나 개경을 거쳐 西海로 흘러들어가는 예성강이 그것이었다. 실제에 있어서 원산리요가 관요였다면, 과연 이와 같이 관요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춘 원산리요를 太廟의 祭器를 제작한 직후에 廢窯시켰을까. 이것은 커다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때에 관요를 폐기시킬 만한 특별한 원인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원산리요를 자기 소로 보는 경우도 그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견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에 자기소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고려시대의 所에 관한 가장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을 진하고 있는 『新增東國輿地勝覽』과 『世宗實錄』 地理志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 물론 이들 地理書에 고려시대의 모든 所들이 수록되어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所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설사 고려시대에 있었던 所 가운데 『新增東國輿地勝覽』와

요들을 운영하던 개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는 의연히 분명하지가 않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서부지방 청자요가 많은 인력동원을 필요로 한 대량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앞서의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37)</sup>

과연 고려 초기에 私的으로 그와 같이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여기에서 그 대상으로 당시 지방사회의 유력자였던 豪族들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들이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각 지방에서 중앙으로부터

『世宗實錄』地理志와 같은 조선초기의 地理書에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徐聖鎬,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pp. 78~79 및 「高麗 수공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韓國史論』 41·42(서울大 國史學科, 1999), pp. 265~270 참조). 이 견해를 중시하고, 아울러 원산리요가 초기청자요를 대표하는 窯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실재에 있어서 이 窯가 자기소로 편제되어 있었을 경우 조선초기의 地理書에서 누락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판단된다(이 점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李喜寬, 「高麗靑磁史上的 康津窯와 扶安窯—湖巖美術館 所藏 靑磁象嵌菊牡丹文「辛丑」銘벼루 銘文의 檢討—」,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鄉』(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0), p. 68을 참조하라). 설령 원산리요가 자기소로 편제되었을 가능성을 남기놓는다고 하더라도, 10세기말기에 이르러 원산리요가 있던 지역이 자기소에서 일반 군현으로 승격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범주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요컨대 원산리요가 자기소로 편제되어 있었을 실제적인 가능성도 거의 무시해도 좋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왜 太廟에서 사용할 祭器를 私窯에서 제작하였을까 하는 점이 의문으로 떠오르지 모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해가 가능하다. 먼저 太廟의 造成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에 私窯라고 해서 비켜서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이 국가와 왕실의 권위와 직결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더욱 그러하다. 말하자면 그 사업의 특성으로 미루어 국가의 의지에 의해서 私窯도 거기에 관여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조선초기에도 私窯의 성격을 띠고 있던 것으로 믿어지는 전국의 磁器所에서 중앙의 官司에 납부할 목적으로 이른바 「官司銘 粉靑沙器」를 제작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필자는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보이는 조선초기의 자기소들이 고려시대의 자기소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점은 무엇보다도 고려시대의 자기소들이 기본적으로 군현제적인 지방제도 안에서 특정한 행정단위—행정구역—로서 기능한 반면, 조선초기의 자기소는 특정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단지 '자기를 굽는 곳'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곳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조선초기 자기소의 이러한 성격은 그것들이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모두 특정한 지역 명칭이 없이 단지 '자기소'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선초기의 자기소는 비록 국가에 貢納의 의무를 지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조선초기의 자기소는 私窯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믿는다. 2001년 6월 8일에 있었던 京畿道博物館 개최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특별전시회 기념학술대회〉 토론석상에서 고려시대의 자기소와 조선초기 자기소의 성격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姜敬淑 교수도 조선초기의 자기소가 고려시대의 자기소와 달리 私窯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필자는 조선초기 자기소의 그러한 성격과 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고를 마련하여 자세히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당시는 고려의 제도와 분물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이었다. 만약 官窯나 磁器所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했거나,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국가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太廟의 제사에 사용할 그릇의 제작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개경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어 통제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당시 초기청자요를 대표하는 私窯 가운데 하나였던 원산리요에 눈을 돌린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37) 본고 제II장 제2절 참조.

터 거의 반 독립적인 강력한 세력을 형성·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요컨대 중서부지방에 산재한 대규모의 청자요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바로 이들 호족들이었다고 판단 되는 것이다.<sup>38)</sup>

이러한 성격의 청자요들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하나같이 소멸의 길을 걷게 된 것을 그 운영자인 호족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호족들이 그 때까지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을 청자요를 일시에 스스로 廢窯했을 까닭이 없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외부적인 강제력에 의해서 단기간 내에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sup>39)</sup>

당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호족들에게 그러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국가를 돌려놓고는 생각하기가 힘들다. 여기에서 국가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호족들의 청자요들을 이 때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소멸시키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하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국가와 그 호족들 사이의 정치·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라말 고려초에 호족으로 성장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러 부류가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해상무역을 통하여 많은 경제적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다. 중서부지방의 청자요를 운영하던 호족들은 필시 이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즉 이들은 대량생산한 청자의 무역을 통하여 상당한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을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sup>40)</sup> 대부분의 중서부지방 청자요가 바닷가에 위치해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해상무역의 편리성을 고려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당시 청자요에서 청자를 빚거나 굽거나 하는 일들과 같이 청자 제작의 핵심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은 전문적인 匠人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밖의 일들, 예컨대 청자를 빚을 흙을 나르거나, 柴木을 마련하여 운반해오거나, 완성된 청자를 실어 내거나 하는 따위의 비핵심적이면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당시 호족들의 영향권 안에 있던 일반 농민들의 몫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租稅·力役·貢賦 등을 부담해야하는 사람

38) 이 점과 관련하여 중서부지방의 각 요를 운영한 호족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가를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료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짐작조차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좀더 많은 자료의 출현을 기다리며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39) 경우에 따라서는 돌발적인 자연현상의 변화 등이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중서부지방으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져있지 않은 강진지방의 청자요들이 소멸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40) 여기에서 당시 호족들의 청자 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분세는 신라말 고려초의 陶磁産業 뿐만 아니라, 호족의 등장과 성장과정 등을 밝히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9~10세기 경제의 새로운 변화상을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別稿를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들이었다. 匠人들 역시 국가에 일정한 부담을 짊어지도록 되어 있었다.<sup>41)</sup> 말하자면 호족들은 국가에 부담해야 할 그들의 노동력을 수탈하여 청자를 생산함으로써 커다란 경제적 부를 축적해나갔던 것이다. 이들 호족들이 당시 고려국가가 지향하고 있던 中央集權化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호족의 세력을 누르고 아울러 사실상 호족들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들을 국가의 지배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 시기에 고려국가가 안고 있던 최대의 과제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太祖 23년(940)에 邑號를 改定한 것<sup>42)</sup>이나 光宗 즉위년(949)에 州縣에서 해마다 납부해야 할 貢賦의 양을 정한 것<sup>43)</sup> 등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들이었다. 그러나 地方官이 파견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국가의 노력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崔承老가 그렇게도 지방관을 파견할 것을 역설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sup>44)</sup>

고려에서 본격적으로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을 成宗이 왕위에 오른 뒤인 10세기말기의 일이었다. 즉 성종은 그의 즉위 2년(983)에 비로소 12牧에 牧使를 파견하였다. 그리고 同王 14년(995)에는 지방제도를 크게 재정비하여 12牧을 12軍으로 개편하여 節度使를 파견하고, 7都團練使·11團練使·15刺史·5都護府使·21防禦使를 설치하였다.<sup>45)</sup> 지방관을 이처럼 전국적인 규모로 증설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많은 지방의 호족들은 종래의 반독자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鄉吏의 지위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성종 2년(983)에 단행된 鄉吏職의 개혁은 그러한 호족들의 지위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46)</sup>

중서부지방의 청자요를 운영하던 호족들의 경우도 여기에서 예외였다고 볼 까닭이 없다. 우선 지방관의 파견으로 말미암아 지방지배력이 강화됨으로써 호족들이 농민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징발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것이다. 더구나 성종 5년(986)에는 전국적인 戶口調査가

41) 고려시대 匠人들의 국가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洪承基, 「高麗時代の 工匠」, 『震檀學報』 40(震檀學會, 1975), pp. 65~68; 徐聖鎬,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pp. 139~142를 참조하라.

42) 『高麗史』 2 世家 太祖 23년 3월. 太祖 23년에 있었던 邑號改定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이우 헤아리기 힘들만큼 연구성과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朴宗基, 「高麗 太祖 23년 郡縣改定에 관한 研究」, 『韓國史論』 19(서울대 國史學科, 1988), 김아네스, 「高麗 太祖代의 地方支配體制」, 洪承基 編,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서울대학교출판부, 1996)을 참조하라.

43) 『高麗史』 78 食貨志 1 田制 貢賦 定宗 4년(光宗 卽位年).

44) 『高麗史』 93 崔承老傳.

45) 고려초기 지방제도의 정비과정에 대해서는 李基白, 「高麗 地方制度의 整備와 州縣軍의 成立」, 『趙明基博士 華甲記念 佛教私學論叢』(趙明基博士 華甲記念 佛教私學論叢 刊行委員會, 1965); 『高麗兵制史研究』(一潮閣, 1968)를 참조.

46) 成宗 2년에 단행된 鄉吏職의 개혁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金鍾國, 「高麗時代の 鄉吏について」, 『朝鮮學報』 25(朝鮮學會, 1962), pp. 87~88 참조.

시행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sup>47)</sup> 이로 말미암아 그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성종대에는 工匠들의 籍인 工匠案—또는 工匠案牘—도 작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sup>48)</sup> 이는 청자 생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匠人들에 대한 지배력마저 국가의 손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중서부지방 청자요에서 고급청자의 생산이 중단되고 청자의 粗質化 현상이 갑자기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그와 같은 농민들과 장인들의 노동력을 징발하기가 어려워진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각별히는 후자와 보다 더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고급청자를 제작하던 장인들의 노동력을 징발하기가 힘들어진 상황 아래에서 청자가 조질화되어 갔을 것임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조질청자를 제작하던 것도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았다. 늦어도 11세기초기에는 그것마저도 생산이 중단되어 廢窯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sup>49)</sup> 顯宗 9년(1018) 4都護府使·8牧使·56知州郡事·28鎭將·20縣令의 설치로 고려 지방제도의 기본체제가 완성된 이 시기에<sup>50)</sup> 중서부지방의 청자요들이 廢窯된 것도 결코 우연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이 청자요들이 10세기말기에 소멸의 길로 접어들어 늦어도 11세기초기에 廢窯되기에 이르게 한 배경에는 중앙집권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호족세력을 누르고 지방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고려국가의 노력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康津地方 中心의 靑磁生産體制의 成立과 그 意味

중서부지방의 청자요가 소멸됨으로서 강진지방의 청자요는 청자 생산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 때부터 강진지방 중심의 청자제작체제가 성립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체제는 어떻게 성립되게 된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장에서는 이 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강진지방의 청자요들은, 앞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서부지방의 청자요들과는 다른 특성

47) 『慶州府尹先生安』의 『東都歷世諸子記』에는 成宗 5년(986)에 “內外에 戶口가 施行되었다(內外戶口施行)”고 하여 이 때에 호구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있다. 물론 이 기록은 후대의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있어서 호구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박종진, 『조세제도의 성립과 조세체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 38~39를 참조하라.

48) 徐聖鎬, 『高麗前期 手工業 研究』, pp. 7~16 참조.

49) 본고 제II장 제4절 참조.

50) 『高麗史節要』 3 顯宗 9년 2월 참조. 그리고 현종 9년에 있었던 지방제도의 정비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성과로 尹京鎭, 『高麗 郡縣制의 構造와 運營』(서울대학교 博士學位論文, 2000), pp. 142~179를 참조하라.

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강진지방 청자요들은 중서부지방의 청자요들과는 달리 대부분 소규모였다. 그리고 중서부지방의 청자요들이 博築窯였던 데 반해서 강진지방의 청자요들은 전통적인 土築窯였다.<sup>51)</sup>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던 강진지방의 청자요들은, 중서부지방의 청자요들이 私窯였던 것과는 달리, 磁器所에 속해 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점은 곧 10세기말 중서부지방의 청자요가 소멸의 길로 접어들 당시까지 고려의 청자생산체제가 강진지방의 磁器所와 중서부지방의 私窯로 양분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서부지방 청자요들이 소멸됨으로써 그러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롭게 강진지방 청자요 중심의 청자생산체제가 확립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곧 고려의 청자 생산이 磁器所 중심의 청자생산체제로 일원화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고려국가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음은 짐작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중서부지방 청자요의 소멸 자체가 국가의 강제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려국가는 왜 그러한 변화를 꾀한 것일까. 이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磁器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所는, 다 아는 바와 같이, 고려 건국 이후 성립된 것으로서 주요한 수공업제품과 일부 농수산물들을 안정적으로 貢納받기 위하여 설치한 특수행정구역이었다.<sup>52)</sup> 그러므로 所에서의 貢納品 생산에는 국가의 직지 않은 관여가 따르게 마련이었다. 磁器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약간 후대의 예이기는 하지만, 강진지방의 磁器所에서 생산된 것이 분명한 이른 바 「干支」銘象嵌青磁들이다. 이 청자들의 內底面에는 제작한 해의 干支가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한 해 동안 강진지방의 磁器所에 책정된 수량의 청자들이 제대로 貢納되는지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한 국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이 청자들의 경우 器種이 한정되고 器形이 매우 규격화되었으며 또한 거의 획일적인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 점은 국가에서 磁器所에 공납해야 할 청자의 器種과 器形 그리고 문양까지 정해주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sup>53)</sup> 이와 같이 국가는 磁器所에서의 청자의 생산과 貢納 전반에 걸쳐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고려국가가 중서부지방의 청자요를 소멸시키고 강진지방 磁器所 중심의 청자생산체제를 확립시킨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청자 생산에 있어서 국가의 지배력을 보다 강화하려는 데 있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51) 본고 제II장 제1·2절 참조.

52) 고려시대의 所에 대해서는 旗田魏, 「高麗王朝成立期の「府」と豪族」, 『法制史研究』 10(1960);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法政大學出版局, 1972); 北村秀人, 「高麗時代の「所」制度について」, 金炫榮, 『고려시기의 所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論』 15(서울大 國史學科, 1986)를 참조하라.

53) 崔健, 「高麗時代後期の 象嵌青磁와 陶磁觀에 관하여」, p. 124. 李喜寬, 「高麗後期 己巳銘 象嵌青磁의 製作年代問題에 대한 새로운 접근」, pp. 13~14 참조.

이러한 국가의 의도에 걸맞게 磁器所는 일반 郡縣들과는 다른 행정계통에 속해 있었다. 다음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B-① 京畿州縣은 常貢 외에 徭役이 무거워 백성들이 고통스러워 날로 도망가고 흩어지니, 主管所司는 界首官에게 貢役의 많고 적음을 물어 酌定시행토록 하라. ② 銅·鐵·瓷器·紙·墨 등의 雜所는 別貢物色을 징수하는 것이 지나치서 匠人들이 고통스러워 도피하니, 바라건대 所司는 각 所의 別貢과 常貢의 많고 적음을 酌定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高麗史, 78 食貨志 1 貢賦 睿宗 3년 2월 判)

사료 B-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 군현의 경우는 각 군현의 실태가 界首官을 통하여 파악되고 아울러 국가의 명령도 그를 통해서 각 군현에 전달되었다. 이에 반하여 磁器所의 경우는 그 실태가 곧바로 중앙관부에 의해서 파악되었다(사료 B-② 참조). 이는 磁器所가 일반 군현들과 달리 행정체계상 중앙에 직속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54)</sup> 그리고 그것이 磁器所를 보다 직접적이고 철저하게 지배하려는 국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편,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은 磁器所에서 생산한 磁器들이 원칙적으로 모두 貢賦의 명목으로 국가에 납부되었을 것으로 이해해왔다.<sup>55)</sup> 이에 따르면 강진지방에서 생산된 청자들은 모두 공납용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과연 실제에 있어서 강진지방 청자요에서 생산된 청자는 모두 공납된 것일까. 사료 B-②에 따르면, 磁器所에서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던 부담은 常貢과 別貢으로 정해진 양의 청자를 납부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 양보다 더 많은 청자를 생산했을 경우 그 초과분의 청자들은 어떻게 처분되었을까.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단 그것들이 磁器所의 자지가 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강진지방의 청자요에서 생산된 청자에 質이 서로 다른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匣燔의 고급청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常燔의 조질청자이다. 양자는 청자의 질적 분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燔造法, 유약과 胎土의 質, 굽감는 방법(磨造法), 굽 받치는 방법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sup>56)</sup> 도저히 이들 모두가 공납용이었다고 보기가 힘들다. 이들 가운데 국가에 공납된 것은 주로 전자, 즉 匣燔의 고

54) 北村秀人, 「高麗時代の「所」制度について」, pp. 44~46, 金炫榮, 「고려시기의 所에 대한 재검토」, pp. 116~117 참조. 단, 朴宗基와 박종진은 所가 중앙에 직속된 것이 아니라, 郡縣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朴宗基, 「高麗의 收取體制와 部曲制」, 『高麗時代 部曲制研究』(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pp. 151~161, 박종진, 「조세제도의 구조」,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 113~117 참조). 그러나 사료 B의 내용을 존중하는 한 이들의 견해는 성립되기 힘들다.

55) 北村秀人, 「高麗時代の「所」制度について」, pp. 6~8 참조.

56) 청자의 질적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崔健,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pp. 5~9 참조.

급청자에 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마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즉 생산된 고급청자 가운데 貢納分을 제외한 나머지와 조질청자는 磁器所의 몫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sup>57)</sup> 이것이 磁器所 운영의 중요한 경제적 토대가 되었을 것임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sup>58)</sup>

이와 같은 磁器所 중심의 청자생산체제가 새롭게 성립됨으로써 강진지방의 청자 생산은 점차 확대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10세기말기까지의 강진지방 청자요지가 49개소인데 반해서 11세기경의 청자요지는 136개소나 된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sup>59)</sup> 이러한 현상은 상당량의 고급청자를 생산하던 중서부지방의 청자요가 소멸된 데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이해된

57) 강진의 청자요지에서 「萬德」·「靑龍」의 명분이 있는 청자가 출토되었다는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萬德」과 「靑龍」은 각각 萬德寺와 靑龍寺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pp. 97~98). 그런데 北村秀人은 이 명분이 새겨진 청자를 공납품으로 파악하였다(北村秀人, 「高麗時代の「所」制度について」, p. 7). 그러나 貢納를 받는 곳은 국가였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 청자를 공납품으로 제작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萬德寺와 靑龍寺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 고려시대에 불교가 국가적으로 尊崇되었다는 점을 들어 萬德寺와 靑龍寺를 포함한 사찰들이 필요로 하는 청자들이 국가의 공납품으로 충당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청자들은 萬德寺와 靑龍寺의 注文에 의해 강진의 자기소에서 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믿는다. 물론 두 질은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 청자들은 공납용이 아니라, 자기소 자체의 수익을 위하여 제작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소에서 공납용 청자의 제작과 아울러 주문제작만을 하였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 주문제작이나 판매용 청자의 제작이나 자기소의 수익의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徐聖鎬도 大口所의 경우를 들어 大口所와 같은 자기소에서 생산된 청자의 所用과 관련하여 그 청자들의 일부는 국가에 공납하고 그 나머지는 자기소에서 임의로 처분했을 것으로 보았다(徐聖鎬, 「高麗 수공업소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pp. 279~290). 이 견해의 주요 근거는 당시 청자의 민간수요가 많았다는 점과, 大口所 靑磁窯址에서 국가에 대한 공납품으로 보기 힘든 粗質靑磁가 상당량 생산되었다는 점과, 고려시대의 民墓—물론 지방 유력자들의 무덤이겠지만—에서도 청자가 광범위하게 출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필자들이 이미 1999년 9월 제114회 韓國美術史學會 월례연구발표회에서 徐聖鎬가 제시한 두 번째 근거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한 바가 있다. 崔健·李喜寬, 「高麗初期 靑磁生産體制의 變動과 그 背景」, 제114회 韓國美術史學會 월례연구발표회 발표요지문(1999) 참조), 첫 번째와 세 번째 근거에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당시 청자에 대한 민간수요가 많았다는 점과 당시의 民墓에서도 청자가 광범위하게 출토되고 있다는 점이 자기소에서 공납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자기소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청자도 제작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당시 청자를 생산하는 곳이 자기소에 국한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당시 私窯가 존재했다면, 거기에서 생산한 청자가 그러한 민간들의 수요에 응했을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大口所와 같은 자기소에서만 청자를 생산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58) 한편, 所의 일반민들은 국가에 貢納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었지만, 국가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나갔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洪承基, 「賤民」, 『한국사』 5 고려 귀족국가의 사회구조(국사편찬위원회, 1975), p. 342. 朴宗基, 「高麗의 收取體制와 部曲制」, pp. 159~160 참조). 그런데 최근까지도 강진지방의 자기소가 있던 大口面과 七梁面 일대는 농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농지 가운데 대부분은 논에 비해 생산력이 크게 떨어지는 밭이었으며, 그것마저도 保水力이 부족하여 收穫高가 높지 않았다고 한다(李龍熙, 「大口面 靑磁窯址의 周邊環境과 發掘調査의 一面」, 崔健 外, 『康津의 靑磁窯址』(海剛陶磁美術館·全羅南道·康津郡, 1992), p. 370 참조). 이 점은 적어도 강진지방의 자기소의 경우 청자의 판매로 말미암은 수입이 차지한 경제적 비중은 그만큼 컸을 것임을 시사한다.

59) 崔健,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pp. 10~13 참조.

다. 이 시기에 고급청자를 생산할 수 있는 청자요는 강진지방의 그것들이 거의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청자 생산의 확대에 따라 강진지방 磁器所의 규모도 확대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인력의 수요가 증대됨으로 말미암아 주변 지역의 일부가 磁器所로 편입되었거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徙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청자제작의 핵심적인 기술자들은 다른 청자요에서 청자를 제작하던 匠人들로 충당되었을 것이다.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주변의 자기소에 소속되어 있던 장인들이 충당되거나,<sup>60)</sup> 그 때까지 중서부지방의 청자요에서 청자의 생산에 종사해오던 사람들이窯의 소멸과 함께 그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짐작된다. 이러한 일들이 국가의 강제에 의한 것이었으리라는 점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다.

이 때부터 강진지방의 청자요는 광범위한 지역에 청자제작과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중국 越州窯 계통의 博築窯가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강진지방에서 채택되어 온 전통적인 土築窯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 것도 그 영향 가운데 하나였다.<sup>61)</sup> 아울러 뒤 이어 全羅北道 扶安郡 柳川里 등의窯에서도 고급청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도 강진지방 청자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sup>62)</sup> 이러한 상황은 그 후 고려 말기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른바 '康津樣式'—또는 '康津類型'—의 청자<sup>63)</sup>가 고려 청자의 本流를 형성하게 된 것은 바로 10세기말기에 11세기초기에 걸쳐 성립된 강진지방의

60)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강진지방 자기소의 중심인 大口所에 인접해 있던 七良所 匠人들의 동향이다. 고려시대의 七良所는 오늘날의 康津郡 七良面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七良面 三興里에 5개소의 靑磁窯址가 있다. 이 가운데 제1·2·3·5호窯址에서는 이른바 일흔저완을 비롯한 初期靑磁片들만 조사되었다. 그리고 제4호窯址에서는 초기청자편들과 고려후기의 象嵌靑磁片들이 발견되는데, 후자는 소량이다(崔淳雨, 『韓國靑磁陶窯址』(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pp. 111~117, 崔健外, 『康津의靑磁窯址』(1992), pp. 355~361, 崔健, 『靑磁窯址의系譜와展開』, pp. 11~13 참조). 그렇다면 七良所는 초기청자가 제작되던 10세기말경까지 활동을 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청자를 생산하지 않다가 고려 후기에 이르러 다시 소량의 청자를 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11세기 이후 七良所는 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七良所가 폐쇄되었다는 기록이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이 점을 중시하고, 아울러 이 시기가 바로 인접한 大口所의 청자생산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때라는 점을 떠올리면, 그 때까지 七良所에서 청자를 생산하던 장인들은 이 때부터 大口所의 청자생산에 가담하게 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七良所의 일반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61) 崔健, 『靑磁窯址의系譜와展開』, p. 13 참조. 단 이 시기에 海南지방의 청자요들은 강진지방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양식의 청자를 생산하였다. 필자들은 본 작업에 이어 해당지방의 청자요를 포함한 11세기 청자의 전개과정에 대한 공동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62) 崔健, 『靑磁窯址의系譜와展開』, pp. 13~14; 李喜寬, 「高麗靑磁史上의康津窯와扶安窯—湖巖美術館所藏靑磁象嵌牡丹文「辛丑」銘머루銘文의檢査」, pp. 70~75 참조.

63) 崔健은 강진지방의 청자와 그 진통을 이은 청자들을 康津樣式의 청자로(崔健, 『靑磁窯址의系譜와展開』, pp. 11~15), 장남원은 '康津類型'의 청자로(장남원, 「高麗시기陶瓷의공공성에관한試考—강진(大口所)유형의청자를중심으로—」, 『제44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전국역사학대회 조직위원회, 2001)) 규정하였다.

磁器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청자생산체제의 성립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초기 청자생산체제의 변동과 그 배경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제 본고에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초기청자를 만들었던 窯址는 우리나라 중서부와 남서해안 지방의 16개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청자를 만드는 핵심적 기술인 築窯法과 窯道具의 사용법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方形 耐火磚으로 窯를 쌓고 〈筒形匣鉢 세트〉와 〈鉢形匣鉢 세트〉에 청자 그릇을 넣어 窯 안에 적재하는 기술을 구사한 이른바 '博築窯' 계열이고, 또 다른 하나는 耐火粘土를 그대로 써서 窯를 쌓고 〈筒形匣鉢 세트〉와 〈陶枕〉을 사용하여 적재하는 기술을 쓴 '土築窯' 계열이다. 전자는 중서부지방에 넓게 산포되어 있고, 후자는 남서해안지방에 밀집·분포되어 있다.

전축요는 한 장소에 정착하여 대규모 요를 1~3基 쌓고 오랜 기간 동안—초기청자시대(9~10세기) 전 기간 동안—청자를 생산한 결과 거대한 퇴적을 남기고 있다. 반면에 토축요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다섯 개 정도의 소규모 제작집단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청자를 제작했기 때문에 수십 개소에 이르는 소규모 퇴적을 남기게 되었다. 이 점에서 중서부지방 전축요들의 대부분은 '定着式 大規模形'으로, 남서해안지방의 토축요들은 '移動式 小規模形'으로 불려도 무방하다.

이와 같은 두 계열의 요들은 品質別 생산량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전축요의 경우가 토축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전체 생산량 가운데 匣燔의 上品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방산동 전축요와 강진의 토축요를 비교해볼 때, 上品의 점유율이 토축요의 경우는 31%에 불과한 반면, 전축요의 경우는 그 두 배가 넘는 67%에 이르고 있으며, 上品의 생산량에 있어도 전축요의 경우가 토축요의 경우보다 무려 7배 정도나 되었다. 이 점은 전축요의 생산 목표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 준다. 즉 대규모의 전축요가 지향하고 있던 바는 바로 그러한 匣燔 上品의 고급청자를 대량생산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중서부지방의 전축요들은 10세기말기에 급속히 쇠퇴하여 늦어도 11세기초기 이전에 소멸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강진지방의 토축요가 청자생산의 중심적인 요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규모나 생산구조 등의 측면에서 강진지방의 청자요에 비해 오히려 우위에 있었던 중서부지방의 청자요가 소멸의 길을 걷게 된 까닭은 그 청자요들의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즉 중서부지방의 전축요들은 私窯였다. 그리고 그 요들을 운영하던 사람은 豪族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권 안에 있는 匠人들과 농민들의 노동력을 수탈하여 청자를 대량생산하고 그것의 무역을 통하여 상당한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다. 이들 호족들은 당시 고려국가가 지향하고 있던 中央集權化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成宗대에 이르러 고려의 지방제도가 크게 정비되면서 지방관이 파견되었고, 이어서 전국적인 戶口調査가 시행되고 아울러 工匠들의 籍인 工匠案—또는 工匠案牘—도 작성되었다. 이는 청자 생산에 동원되던 농민뿐만 아니라 청자 생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던 匠人들에 대한 지배력마저 국가의 손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중서부지방 청자요들이 소멸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농민들과 장인들의 노동력을 징발하기가 어려워진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호족들의 전축요가 소멸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였던 것이다. 결국 이 전축요들이 10세기말기에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늦어도 11세기초기에 廢窯하게 만든 배경에는 중앙집권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호족세력을 누르고 지방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고려국가의 노력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서부지방의 청자요들이 私窯였던 것과는 달리 강진지방의 청자요들은 磁器所에 속해 있었다. 이 점은 곧 10세기말 중서부지방의 청자요가 소멸의 길로 접어들 당시까지 고려의 청자생산체제가 강진지방의 磁器所와 중서부지방의 私窯로 양분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서부지방 청자요들이 소멸됨으로써 그러한 이원적 체제가 무너지고 새롭게 강진지방 청자요 중심의 생산체제가 확립되게 되었다. 이것은 곧 고려의 청자 생산이 磁器所 중심의 청자생산체제로 단일화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 때부터 강진지방의 청자요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지면서 청자제작과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土築窯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 것도 그 영향 가운데 하나였다. 아울러 뒤 이어 全羅北道 扶安郡 柳川里 등의窯에서도 고급청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도 강진지방 청자요의 영향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 후 고려 말기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른바 '康津樣式'—또는 '康津類型'—의 청자가 고려 청자의 本流를 형성하게 된 것은 바로 10세기말기에서 11세기초기에 걸쳐 성립된 강진지방의 磁器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청자생산체제의 성립과 떼어 수 없는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ABSTRACT]

## Changes in Celadon Production System in the Early Koryŏ Dynasty and its Background

Lee Hee-gwan and Choi Kun

Kiln sites for the early celadons spread across 16 places in the middle west and the south west coast regions in Korea. These are divided into brick kilns which were made of fire bricks, and soil kilns which were directly made of fire clays. The former is mainly scattered in the middle west regions, whereas the latter is densely located in the south west coast regions. Brick kilns were settled in one place, with one to three kilns constructed, and celadons were produced for a long time, the whole period of the early celadon age (9-10 centuries), thereby leaving huge-scale deposit. On the other hand, soil kilns have left small-scale deposits in tens of places, because around 5 production groups of small scale produced celadons while moving here and there in a certain area.

In this respect, the most of brick kilns in the middle west regions can be called as 'large-scale mobile type', whereas the soil kilns can be called as 'small-scale static type'. These two types of kilns had apparent differences in quality and the amount of production as well. When brick kilns of Pangsŏn-dong in Kyŏnggi-do are compared with soil kilns of Kangjŏn-gun in Chŏllanam-do, it is found that the occupancy rate of high quality is just 31% for soil kilns, whereas that of brick kilns is 67%, which is more than double of the former. Also, the amount of the latter has 7 times as big as the latter. This is the basis of the assumption that the goal of the large-scale brick kilns was the mass production of celadons of high quality.

However, brick kilns decreased at the late 10th century, and disappeared, at least, before the early 11th century. As a result, soil kilns of Kangjŏn area became the central place of celadon production. The reason for the sudden disappearance of celadon kilns of middle west area, which were more dominant than those of Kangjŏn area in terms of scale and production structure, is related to the changes

of national policies. That is, brick kilns were private ones, run by local powerful clans. They exploited craftsmen and peasants and produced celadons in large quantities, thereby accumulating their wealth significantly by means of trading with the products. However, when the political system of Koryŏ dynasty became centralized, the resources of humans and materials began to be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roduction conditions of the large-scale kilns became rapidly worsened. At last, these brick kilns began to disappear at the late 10th century, and disappeared, at least, at the early 11th century. This was one of the policies of Koryŏ dynasty that tried to suppress local powerful clans who were the strongest obstacles to centralization of the power.

When brick kilns in the middle west areas disappeared, the production of celadons of Koryŏ dynasty became simplified into the celadon production system of Kangjin area. The traditional soil kilns began to replace the Chinese style brick kilns, and began to spread nationwide. After that, kilns such as in Yuchŏn-ri, Puan-gun in Chŏllabuk-do produced high quality celadons, and such a circumstance remained even up to the end of Koryŏ dynasty. In short, the fact that the celadons of 'Kangjin Style' became the mainstream of Koryŏ celadons is closely related to the new establishment of celadon production system focusing on the celadon kilns of Kangjin area, which were established around the late 10th century and the early 11th century.